

雲門

불기 2561년

여름호

통권 제141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분을 펼치다

- ☺ 만물이 활짝 열리는 풍성한 여름이 되니 감히 셀 수 없이 크고 큰 세상을 다시 만나는 듯 합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무수한 참회, 감사, 예배공경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 대교과 혜정
- ☺ 초심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해 많이 느끼게 됩니다. / 대교과 휴정
- ☺ 당연하게 쓰던 물, 당연히 옆에 있는 도반, 이번 가뭄으로 되돌아 옵니다. / 사교과 대호
- ☺ 타는 듯한 태양, 걸음마다 흐르는 땀방울, 말라버린 물... 덕분에 더욱 소중한 물 한 방울, 그늘 한 자락, 도량 안의 옹�띠 스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 사교과 자운
- ☺ 타는 목마름으로~! 비어 내려주소서! / 사집과 향광
- ☺ 무더운 여름... 수박 같은 도반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 사집과 자운
- ☺ 오디와 복분자를 구분 못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으며 입가에 미소 가득한 우리는 원두 사집반!!! / 사집과 선주
- ☺ 당황하고 버거워하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짓고 사라지는 팔토시 어벤져스들. 사랑합니다. / 사미니과 선아
- ☺ 날이 더울수록 바람 한 줄기의 시원함에 선득 놀랍니다. 여름을 맞아 모두가 모두에게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스쳐 지나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한철이 되기를 빕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 사미니과 법운

雲門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날마다 좋은 날 평성
06	교수논단	능엄경 이야기 I 온광
11	선방에서 온 편지	이제는 좋아도 좋습니다 차경
14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작지계作持戒의 실현 원범
16	자유기고	우리의 원래 집으로 여행 범석
19	학인논단	그들은 왜 서천으로 갔는가 『서유기』를 읽고 I 우연
24	외부기고	수행자는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사람 조정욱
28	수행의 두레박 하나	자존감 범일
30	수행의 두레박 둘	내 목에 걸린 가시 - 忍辱 성경
32	수행의 두레박 셋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도욱
34	운문, 운문인	우리도 부처님같이 편집부
36	차례법문	오분향五分香 진과
38	선지식 탐방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께 '이 세상, 부처님 세상' 되는 비법을 듣다 혜도, 평진
44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순치황제출가시
46	사카디타 참관후기	2017년 제15차 홍콩 사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를 다녀와서 혁념
50	여름불교학교	새로운 리홀라 존자를 맞이하며 지안중
52	운문논평	일탈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수처작주 입처개진 편집부



날마다 좋은 날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원장



2017 정북울림 음악회

중국 당나라 시대에 雲門文偃 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雲門 선사는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5일 이전의 일은 그만두더라도 지금부터 15일 이후의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거라.”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운문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지요.

“日日是好日”

윗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매일이 편안하고 무사한 날들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禪的인 해석은 아닙니다. 운문은 어째서 “日日是好日”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에 점을 찍었을까요? “15일 이후의 마음”에 점을 찍은 제자들은 모두 15일 이후의 마음을 궁구하면서 대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일이라는 기간을 제시한 운문도 역시 지금, 이 순간의 대답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無常迅速한데 어떤 마음에 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삼가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는 날마다 좋은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일이라는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오늘의 연장이 내일이고 오늘이 지난 때가 어제였으니까요. 어느 한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日日是好日”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고 안전한 날만이 “日日是好日”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겨우 해결되었는가 싶었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날그날 일어나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날 하루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루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한 순간이요 一日입니다. 그날 하루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산다면 그야말로 日日是好日이 될 것입니다.

好日은 바람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날마다 好日을 만들고 발견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그날을 만들고 충실한 好日의 나날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日日是好日”에만 안주한다면 그것도 집착이 되어 편안하거나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 선사는 “日日是好日”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만 진정한 “日日是好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운문 선사가 말한 “日日是好日”은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은 편안하고 맑은 경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쁠 때에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즐거우며 슬플 때는 슬프고 괴로울 때는 괴로우며 화날 때는 화를 냅니다. 그때 그때마다 대응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으면 日日是好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능엄경 이야기 I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I. 서론

- 1. 드라마틱한 능엄의 시작
- 2. 아난! 그대는 왜 출가를 하였는가

II. 본론

- 1.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칠처징심)
- 2. 천개의 달, 천개의 바람, 천개의 불꽃
- 3. 대승불교의 이해
 - 1) 능엄경의 세계관
 - 2) 윤회하게 된 이유를 물으신다면

III. 결론

I. 서론

1. 드라마틱한 능엄의 시작

능엄경¹⁾의 본래의 제목은 『대불정大佛頂여래 밀인如來密因수중요의修證了義제보살만행諸菩薩 萬行수능엄경首楞嚴經』이다.

경전의 제목이 굉장히 낯설고 독특하며 길고

이상하기까지 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능엄경은 실제로 이상하고 야릇한 경전이며, 신기하고 또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대승불교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경전이다.

수능엄이란 범어 수람가마(Sūramgama)의 음역으로 필경견고畢竟堅固의 뜻이다. 능엄경에 주해를 하셨던 계환 스님의 해석으로는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구경 아님이 없어서 실상의 견고불괴堅固 不壞에 이르게 하는 것’²⁾이라고 해석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매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으며,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경에 결코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실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필경견고의 세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불성, 여래장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능엄경은 바로 우리가 본래로 완벽한 여래장의 성품을 지닌 존재임을 밝혀내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능엄경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엄의 요지는 기탁염棄濁染 발묘명發妙明으로 탁하고 오염된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을 계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제4권까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능엄의 세계로 마법의 빛자루를 타고 떠나보자.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기원정사에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는데 마침 그날은 안거安居를 마치고 자자自恣³⁾하는 날이었으며, 시방의 보살들도 이 자자일에 의심스러웠던 것을 묻고 해결하려고, 부처님 곁에 공손히 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때에 파사익왕이 그 부왕을 위하여 제삿날에 재齋를 지내려고 부처님과 대중들을 함께 청하여 최상의 음식으로 영접하였다. 다만 아난은 미리 별창⁴⁾을 받고 멀리 나가 돌아오지 못하여 대중과 함께하는 파사익왕의 재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서 걸식을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아난! 그대는 왜 출가를 하였는가

우리의 잘생기고 멋있는 아난은 혼자서 결식을 하던 중 환술을 잘하는 마둥가족의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첫 눈에 아난에게 반해버렸고 사비가라의 주문으로 아난을 유혹하여 아난은 파계를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부처님께서는神通으로 아난의 상황을 훤히 실시간 생중계를 보듯이 아시고, 급히 파사익왕의 재를 마치자마자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부처님은 정수리로부터 백보무외광명을 놓으시니 광명 가운데 천 개의 연꽃이 피어나고, 꽃잎마다 그 속에 부처님의 화신化身이 신비한 주문을 설하시었다. 그 신비한 주문을 가지고 문수사리보살에게 아난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시니 악주惡鬼가 소멸하고, 아난과 마둥가녀는 대중들 앞에 짝~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 여기에서 능엄경의 중요한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나 있다. 다른 경전에는 없는 주문이 등장하고 있어 능엄주라는 밀교의 성격이 경전 내용 중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음욕의 문제로 경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부처님은 아난에게 세간의 그 깊고 무거운 사랑과 은혜를 모두 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 아난은 여래의 32상을 보고 발심하여 부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출가했노라 대답을 하니, 부처

님은 아난에게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였는가?”하고 다시 질문을 한다.(이 질문 자체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였던 것은 저의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여래의 수승한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했기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난은 대답을 한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일까? 우리는 능엄경을 통해서 앞으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시시각각 우리 앞에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칠처정심七處徵心)

“아난아! 너를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다.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부처님의 물음으로

1) 大正新脩大藏經 第19冊
No.945 大佛頂如來密因陀羅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卷)
【唐 般刺蜜帝譯】

2) 계환해 『楞嚴經』17, p.682上

3) 자자自恣란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을 때 대중이 마음대로 들추어내도록 맡기는 것이다. 석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해 부처님을 뵈올 수 없었으므로 하안거를 마치고 모두 모여 마음에 의심되었던 바를 묻고 해결하는 것이니, 자자결의自恣決疑란 대중이 그 동안 석 달의 덕업德業을 회상하는 일이다. 『계환해』(楞嚴經)17, p.686上

4) 별칭別請은 재가신도가 수행승 가운데 특정인을 지정하여 공양 올리는 특별한 초청이다.

부터 아난은 마음이 있는 곳을 탐색해보지만 번번이 부처님의 논박으로 '그곳에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일곱 차례에 걸친 논쟁이 바로 철처징심이다.

중국 禪 스타일이라면 쓸데없는 분별망상을 멈추게 하는 방편으로서 할! 하고 소리를 치든지, 방망이로 뺨다 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묻고 대답하면서 분별의 한계에 부딪치게 하여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를 발견하게 한다.

① 재내在內

아난 : 눈은 얼굴에 있고 마음(식심識心)은 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 : 예를 들어 큰 강당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문과 창을 통해서 강당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다음으로 창밖의 풍경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만약 마음이 우리의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의 것(오장육부)을 먼저 보고, 나중에 밖의 것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난아!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② 재외在外

아난 : 아! 그럼 마음은 몸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등불이 방 밖에 켜져 있으면 방 안은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몸 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밖의 풍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너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되어, 마음이란 것이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마음이란 말이나.

③ 잠근潛根

아난 : 그렇다면 부처님 제 생각으로는 눈(眼根)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눈 앞에 유리를 댄 것처럼 밖을 보는 데는 장애가 없고 안근에 숨어 있어서 몸속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 : 눈 앞에 마음이 있다면 산과 강을 보기 전에 바로 너의 눈을 먼저 보고 밖의 대상을 보아야 하겠지.

④ 잠암藏暗

아난 :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보는 것으로 밖을 본다 하고,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으로 안(몸 안의 오장육부)을 본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 뜻이 어떻습니까?

부처님 :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 이 어두운 눈이 상대한 대상으로서의 어둠이지 어떻게 몸 안을 보았다 할 수 있겠는가. 아난! 말이 되질 않는구나.

⑤ 수합隨合

아난 :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 마음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준하여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사유 자체가 진실한 우리의 심성이므로 대상에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 그렇다면 아난아 대상에 합할 때 바로 대상에 합하는 마음의 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만약 온몸에 마음의 체가 두루 퍼져 있는 것이라면 온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어 팔을 꼭 찌르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야 할 것이다.

또한 체가 온몸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머리를 부딪쳤을 때 머리가 아픈 것을 머리만 알아야 하는데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하든 다 알고 있으니 마음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⑥ 중간中間

-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난은 무척 난감해하며 골똥히 생각에 잠겨 있다. -

아난 : 또 다시 생각해 보니 부처님 마음은 육

근과 육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의 중간이라 하니 아난아 그 중간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깥경계 쪽인가? 아니면 몸 쪽인가? 마음이 근根과 진塵의 중간에 있다면 마음의 체가 둘을 겸하고 있는 것인가? 둘을 겸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육근과 육진을 겸했다면 대상과 체가 섞여서 혼란스러울 것이고, 겸하지 않았다면 서로 상관없는 것이 되어 중간 자체를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아난아 중간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나라.

⑦ 무착無着

아난 : 휴! 부처님 드디어 알 것도 같습니다. 바로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집착함이 없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 : 음! 과연 그럴까. 네가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데 다만 집착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이 없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난아 '대상이 있다'고 분별하면서 '집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집착한 것이고, 대상이 없다면 아주 없는 것이어서 집착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으니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다.

어쩌면 좋은가? 아난은 마음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2. 천개의 달, 천개의 바람, 천개의 불꽃

아난은 눈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켰노라 말했는데 여기에서 눈으로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먼저 파사익왕이 갠지즈강의 강물을 처음 보았던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육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강물을 바라보는 그 성품은 조금도 늙거나 쇠약해지지 않았다.

또한 지리산의 천왕봉에 올라가면 겹겹이 쌓인 거대한 지리산을 시원하게 다 볼 수 있고, 아늑한 차실로 들어가면 아주 좁은 공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육체에는 늙고 죽는 생사가 있고, 보이는 대상에는 넓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지만 보는 작용에는 생사가 없고, 또한 늘어나거나 축소되는 일도 없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견성見性(보는 성품)은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꿈속에서조차도 선명하게 보고 있다. 무엇이 보고 있는 것인가? 얼굴에서 반짝이며 빛나고 있는 우리의 작은 눈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를 능엄에서는 묘진여성妙眞如性이라 했고, 선가禪家에서는 보는 놈.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놈. 그것을 일러 일물一物 즉 한 물건이나 주인공 동등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진실한 성품과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대상, 즉 객관세계는 모두 환幻이며 거짓이며 가상의 세계라고 대승의 모든 경전에서 일체히 말하고 있다.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는 실제상황이 왜 허상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반야심경에서는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야의 진리는 능히 일체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간곡히 설파하고 있지 않은가. - 능제일체고能除一切苦 진실불허眞實不虛 -

반야의 세상에서는 안이비설신의가 없고, 색성향미촉법의 객관세계도 없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왜 무無인가.

자! 커다란 호수 위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는 밤을 상상해 보라.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서 있고 어떤 멋있어 보이는 대장님이 각자의 방향

으로 걸어갈 것을 명령한다. 동쪽으로 걷는 사람에게
 는 달이 동쪽으로 따라가고, 서쪽으로 걷는 사람
 에게는 서쪽으로 달이 따라간다. 이렇게 천명의 사
 람이 있다면 천개의 달이 천명의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달은 호수 속으로 들어간
 일이 없으며 더욱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한 일
 도 없다. 지극히 고요한 모습으로 진짜 달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치 달이 동쪽으로 자기를 따라
 움직이며 천개의 달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듯이 제
 각기 자기가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
 가 보고 있는 이 순간은 가짜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묘진여성의 세계는 불생불멸不
 生不滅의 세계이고 부동不動의 세계다. 하늘의 달
 과 물속의 달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본체를 같이 하
 고 있어서 이 세계는 환과 같은 가상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진여의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는 마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
 하겠다.

농염경에서는 이 우주의 구성요소를 지地 수
 水 화火 풍風 공空 견見 식識 칠대七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地 水 火 風 空은 물질적 요소, 見과 識은
 정신적 요소로 분류 된다. 농염경 3권에서는 七대
 가 이 우주에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법사가 허공에서 비둘기나 빨간 장미를 눈 깜짝
 할 사이에 만들어 내는 것처럼 농염의 세상에서는
 불과 물과 바람과 허공을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
 다. 이러한 마법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
 이 필요하다. 먼저 삼, 볼록렌즈, 썩과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을 모시겠다.

마법사가 키가 높은 교갈모자를 쓰고 첫 번째
 로 허공을 만들어 보일 것이다. 삼으로 향아리만큼
 의 땅을 파면 향아리만큼의 허공이 생긴다. 그리고
 63빌딩만큼 땅을 파면 63빌딩만큼의 허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땅을 파면 그만큼의
 허공이 금방 우리 눈앞에 뽕~ 하고 나타나는 것이
 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우주 전체가 허공이

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불을 만들어 보겠다. 햇별이
 내리쬐는 한낮에 볼록렌즈 밑에 썩을 두고 주문을
 외우면 썩에 불이 붙는다. 만약 천개의 볼록렌즈와
 썩을 준비한다면 천개의 불꽃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다. 불은 어디에서 왔는가? 불은 태양에서 왔을까?
 아니면 볼록렌즈나 썩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다. 온
 우주가 불로 가득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만들어 보자. 여법하게 가
 사 장삼을 입은 스님이 마법사 옆을 지나가면 가사
 자락 끝에서 바람이 휩 나타난다. 천명의 스님이 가
 사를 입고 지나가면 천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다. 우리는 끝도 없이 바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바
 람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가? 우주에 가득 바람
 이 스며 있다가 누군가 바람을 부르면 바람으로 불
 로 물로 허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Anytime
 anycall이다.

같은 이치로 우리 손이 닿을 듯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전기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으
 로 목소리가 허공을 날아오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
 이 지구 반대편 컴퓨터 화면 위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음성과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이 가
 득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기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
 면 생각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법이다. 이를 화염의 세계, 여래
 장의 세계라고 한다. 🍀



법계사 선원 전경 사진

이제는 졸아도 좋습니다

자경 / 법계사 수좌

산중생활이 어디나 그러하듯 선방도 도량식으로 하루를 연다
별빛에 눈을 씻고 찬바람 새벽공기로 오감을 깨워 달빛으로 샤워까
지 마치고
큰방에 앉으면 절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심귀명혜 일심정례다.
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다

예불 후 입선 죽비소리 딱-딱-딱
동시에 몰려오는 졸음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졸음이란 이놈 한참을 졸다 공양간 무쇠
술 뚜껑 여는 소리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의심의 세계로 나아간다.
참선은 역대조사가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신심 의심 분심이다.
옳니 그러니 크니 작니 높니 낮니 그 구질구질한 것에서 벗어나 대
자유인이 되어
세상을 고통에서 구해보겠다고 출가한 신심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선도 악도 생각지 말고 내 본래면목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지?
누구인지-하고 있는 놈을 어떤 놈인지 의심한다.



법계사 대웅전

오고 가고 앉고 서고 밥 먹고 말하고 울고 웃을 때 가고 오는 줄, 앉고 서는 줄, 먹고 자는 줄, 웃고 우는 줄, 이는 그놈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의심한다.

그 의심이 약해지면 저 어려서 놀던 일, 아팠던 일, 좋았던 일, 싸웠던 일, 하고 싶었던 일, 좋아했고 미웠던 사람, 노래 등 셀 수도 없는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때 가슴을 치며 울고 울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 일분일초를 이렇게 앉아 저 아까운 시주물을 먹고 망상 피우고 즐다니 이려고도 중이라고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나?

분발해서 한 철 두 철 일년 이년 오년 …… 이렇게 지나다보니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였다

내가 잘난 체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무도 잘났고 청정해지기를 조석으로 발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무도 맑고 밝은 청정 그 자체였다.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도 아름다운 존재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체득해가고 있었다

강원을 졸업하고 경허 선사의 참선곡 한 대목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소분공덕 여간 계행이 도무지 허사로다”에 박혀 송담 큰스님 찾아뵙고 바랑 하나 짊어지고 불영사로 첫 철을 가 초파일에도 본사로 가지 않고 일 년을 넘게 살았다.

얼마나 억지로 애를 용을 썼는지 기가 막혀 앉을 수가 없어 걷고 걷다 힘들면 마당에 드러누워 하늘

을 보면 다시 힘이 생겼다

내 마음은 너무 맑아 정천(澄天)이 부끄러워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 맘 늘 어른이 고팠고 도반이 고팠다.

열시 방선하면 몸은 천근인데 자지도 못하고 도량을 돌며 기와지붕 위로 부서지는 달빛에 취해 월면불과 포행하며 화두를 챙겼다

나에게 저 달빛같이 환하게 안겨 오는 도반이 있었으면 했다.

그러나 그 달이 바로 내 도반이었음을 알았다.

새벽 공양간 솔뚜껑 소리, 무더운 한여름 시원한 소나기,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 내 화두를 신고 강으로 간 계곡물, 바람에 실려 온 칠푼 향기, 시리게 푸른 가을하늘 몽계구름, 추운 겨울 밤 산짐승 울음 등등 모두가 나를 깨우고 기쁨을 준 고맙고도 고마운 도반들이었다.

참선자는 책을 보지 마라는 어른스님들의 염려가 진짜 그런 줄 알다 일년 이년 지나서는 서장을 보고 선요는 아예 들고 다니며 실중삼판을 되뇌었다.

이제는 해제하면 조사 어록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내 맘대로 선사를 만난다.

이제는 부르다.

시시에 스승을 만날 수 있고 처처에 도반이니.

이번 여름은 대둔산 밑 법계사에서 안거중이다.

삼층 선방은 시원하다.

노스님도 조시고 나도 존다

도도히 흐르는 신심의 강물에 화두는 속으로 속으로 흐른다.

법계사는 다른 선방과는 달리 대중에서의 각방생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노스님이나 몸이 불편한 나 같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짜여졌다.

평생수좌로 계신 노스님들, 다 놓으시고 대중에 공부하고 싶어 오신 노스님,

외길 중진 수좌스님들.

해 가리고 눈비 막아주는 백팔법당 백팔동 수천 장의 기와들.

아래 윗 마당에 엮어져 디딜 때마다 네 뒤를 보라고 자갈대는 수억 만개 자갈돌들.

숲속 나무들 잎들 꽃들 산새 풀새.

이곳 대중은

전삼삼 후삼삼. 🍄

작지계作持戒의 실현

원법 /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너무 가물어서 운문사에서는 용띠 스님들이 이목소에서 기우제까지 지내는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부족하다. 하늘에 정성스럽게 비님이 오시기를 빌어본다.

며칠 전 운문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스님들과 함께 홍콩에서 시행된 사카디타 여성불자대회에 참여하였다. 우리 모습이 곧 한국불교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냉병이 들 것 같은 세미나 장에서 온통 영어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 보였다. 더욱이 화합을 위해서, 대중의 공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고 물러서고 인내하는 모습에서, 굳이 계를 운운하지 않아도 대중에 사는 자체가 이미 계율을 자연스럽게 녹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운문사에는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이 개설되어 비구니 스님들이 여러 경전을 배우고 있다. 이 불전승가대학원이 개설되기 전에 보현율원이 개원되었었다. 9년 전 율원에서 회주스님께 『사분비구니계본』을 공부하면서 대중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해결하는 칠멸쟁법七滅諍法을 배웠던 기억이 있다.

칠멸쟁법은 부처님께서 승단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갈마를 진행한 법으로 쟁사에 대한 벌을 주기보다는 다툼을 없애고 대중을 화합시키고자 시설한 것이다.

그 첫째는 쟁사를 일으킨 사람이 대중 앞에서 그 일을 드러내게 하는 것(현전비니現前毘尼)이고, 둘째는 문제의 발단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분쟁을 없애는 것(억념비니憶念毘尼), 셋째는 허물을 정신이 혼미해서 짓게 되었는데 지금은 정신이 맑다는 것을 규명해서 분쟁을 없애는 것(불치비니不癡毘尼)이다. 넷째는 본인이 자백하게 해서 분쟁을 없애는 것(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이고 다섯째는 다수결로써 분쟁을 없애는 것(다인어비니多人語毘尼)이며, 여섯째는 허물의 증거를 찾아서 분쟁을 없애는 것(떡죄상비니寃罪相毘尼), 일곱째는 증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는 풀로 땅을 덮듯이 해서 분쟁을 없애는 것(여초부지비니如艸覆地毘尼)이다.

이 가운데 일곱째 여초부지비니如艸覆地毘尼에 대해서 평소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 분쟁의 원인이 증거불충분이나 당사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풀로 땅을 덮듯이 하려는 조항이 그 일에 대한 회피 혹은 외면하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 특히 상·하좌가 같

이 생활하는 대중에서 생기는 분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에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사실을 밝히게 되면 밝히지 않을 때보다 개인에게나 대중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폴로 땅을 덮듯이 덮어둔다면 분쟁의 씨앗은 여전하여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날 어떤 일에 대해서 드러내자니 처한 상황에서 드러낼 수도 없고, 덮어버리자니 다시 언젠가 발생하여 대중을 실망시키고 분쟁거리가 될 것이 분명한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다. 선배스님과 한두 시간을 이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스님은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번 일은 덮어두고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상황설정을 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구나! 여초부지비니는 덮어버리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중에게 분명 다시 분쟁거리가 될 수 있거나 대중을 기만하고 너름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갈마를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설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즉 분쟁의 소지가 개인과 대중에 이롭지 못할 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탐구하지만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것 또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수돈오사비돈체理雖頓悟 事非頓除라 하였던가. 이치로는 알아도 현실에서 부딪칠 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몰록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중생의 모습이다. 칠멸쟁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일에 응하여 쓰기가 쉽지 않았다. 이 해결방법은 나에게 또 다른 안목을 열어 주었다. 폴로 덮듯이 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 수행자의 참모습이요, 보살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소소하게 언쟁하고 시비하며 살고 있다. 시비와 언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대상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자신 스스로가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것이다. 타인의 마음을 고치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잘못을 혹은 시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대중에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밝은 지혜일 것이며 작지계(作持戒)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하다. 가물었던 대지를 덮고 있는 저 먹구름 속에 한가득 비를 머금고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우산도 챙기고 비 새는 고무신도 바꿔 신는다. 이렇게 미리 대비할 때 비가 와도 허둥대지 않고 감사하게 소나기를 맞이할 수 있듯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예견가능한 일에 있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대중의 화합은 물론이려니와 소중한 인연들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원래 집으로 여행

법여 / 사교과



제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는 격렬한 변화를 경험했다. 세계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로 나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사람들의 의식을 흔들어서 놓았다. 젊은이들은 정치나 나라에 대한 신념을 잃었고 “Stop the war! (전쟁을 멈추라)” “Peace and Love! (평화와 사랑)”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왜 전쟁을 끊을 수 없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은 물질적인 세계를 떠나 정신적인 진리에 돌아가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 시절에 선불교가 대양을 건너서 미국에, 또한 유럽에 전해졌다.

단지 “What am I? (나는 무엇인가)” 를 추구하라는 간절한 가르침은 많은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 그들은 마음의 고향을 찾아 국경을 넘어서 세계각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봄 방학이 끝나기 직전, 나는 홍콩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다.
 유럽사람인 것 같은 한 남자가 내 사형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나요?)
 그는 또한 유럽사람이기도 한 내 사형님에게 친근감을 느낀 것처럼 보였다.
 “I’m from everywhere.” (저는 모든 곳에서 왔어요)
 내 사형님이 대답했다. 그 남자는 장난스런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So, where did you start?” (그럼 어디서 시작했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행을?

내 여행은 어느 날 오후에 문득 시작되었다. 그날 나는 혼자 집에서 특별한 일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앉아서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충동이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이 강한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때부터 매일 매일 그 일을 계속했다. 그냥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왜 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앉아서 숨쉬는 그 자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갈망했던, 놓쳤던 그 자리라는 사실이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깨어나라! 그만 괴로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부처님의 길을 만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긴 만행과 오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한 대륙에서부터 다른 대륙으로 다녀보고, 여러 수행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 아무도 나에게 수행의 방향을 알려주지 못했다. 심지어 보리수나무 밑에서 밤새도록 앉아 봤는데도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보트 또는 비행기로 산, 도시, 강, 카페, 작은 거리, 큰 도로 및 대양으로 여행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내 수행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해변은 단지 같은 해변이다. 그리고 모든 산은 같은 하나의 산이다. 그래서 카페, 사람, 거리 등등은 다 똑같다. 모든 목적지로의 여행은 항상 같은 이야기, 같은 기쁨, 같은 흥분과 같은 고통으로 끝난다.

‘더 이상 가고 싶은 곳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런 시절에 승산 선사(Shan Xian)의 “Compass of Zen (선의 나침반)”을 읽게 됐다. 책을 읽고 나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내 방향을 찾았다! 더

이상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다.”

그 가르침은 아주 간단한 영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올바른 참선은 너의 참된 자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라. 묻고 물어 모든 생각이 끊어지면 그것이 사유 思惟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다. 그것을 ‘Don’t Know mind (모르는 마음)’ 라고 부른다”.

선사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래 마음은 하나이지만) 만약 생각하면 너의 마음은 내 마음과 분리된다. 그러나 만약 모두 생각을 버리면 너의 마음과 내 마음, 모든 우주는 똑같은 것이다. 너와 나는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나는 보통 이런 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그가 책에서 말한 것은 완전히 믿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가진 법의 힘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선사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Don’t Know mind”로 돌아갈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순간에만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한 상황, 우리의 기능 및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시도하라. 만 년이라도 될 때까지 노력하라…… 깨어라!

그 이후로 나는 숭산 선사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여러 나라의 선 센터에서 수행했다. 찾았던 모든 수행 센터에서 나처럼 원래의 집을 찾고 있는 도반들을 만났다.

한국에 와서 출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왜 여기서 출가하려고 하나요? 일본에도 불교가 있는데 왜 여기로 왔나요?” 선사께서는 이 몸은 단지 렌트카라고 가르치셨다. 이 삶에서 나는 일본 차로 태어났지만 다음 인생에서는 한국 차로 태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동일한 반죽, 똑같은 보편적인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똑같은 “Don’t Know mind”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이 여행을 시작했을까?

원래 집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Don’t Know mind”에 돌아갈 수 있다면, 순간 순간마다 있는 그 자리가 원래의 집이 될 것이다. 🍃



그들은 왜 서천으로 갔는가 『서유기』를 읽고 1

우연 / 사잡과

목 차

I. 머리말

II. 『서유기』 이야기의 구조

- 1) 창작배경
- 2) 이야기 구조

III.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 1) 삼장법사
- 2) 손오공
- 3) 저팔계
- 4) 사오정

IV. 모험으로 상징된 수행의 과정

V. 맺는말

I. 머리말

동양의 이야기 가운데 최고봉으로 꼽히는 『서유기』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중국에서 『서유기』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1980년대 “개혁개방”의 여파로 고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우선 유물사관을 강조하던 사회주의의 억압 때문에 한동안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환상을 다룬 작품의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었고 전문 연구자들은 이 작품에 내재된 반봉건적 성향을 강조하는 데만 급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서유기』는 어린이를 위한 만화나 영화의 형태로만 알려져 있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도 만화들은 단순히 ‘신나는 모험 이야기’라는 일차원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작품에 담긴 풍자성과 철학적 내용을 없애버림으로써 작품이 전달하고자 했던 세계관과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선악의 갈등구조에 대한 반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는 소홀히 취급하였다. 『서유기』는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거부하고, 선과 악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으므로써 세계의 구조를 이분법적 대결의 마당이 아니라 삼차원적 영향관계가 뒤얽힌 그물망으로 표현하였다. 즉 주관적인 이권에 의해 판단되는 선악이란 결국 허구적인 포장에 지나지 않으며, 선을 추구하는 대개인의 노력 - ‘정精’ ‘기氣’ ‘신神’의 수련을 통해 ‘도道’와 합치고자 하는 수련 - 이 어울려 성과를 이룰 때 비로소 이상적인 세계가 도래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유기』에서 묘사한 주인공들과 요괴들의 대결은 어느 한쪽의 궁극적인 소멸을 지향하는 극단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선한 길로 귀의하도록 인도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대승불교에서 제도하고자 하는 ‘중생衆生’의 범위 안에는 요괴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유기』는 기존의 학술논의를 정리하여 독자들을 ‘교육’하기보다는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II. 『서유기』 이야기의 구조

1) 창작배경

『서유기』는 대개 명나라 때의 오승은吳承恩(1500?~1584? : 자는 여충汝忠, 호는 사양산인射陽山人)이 기존에 축적된 민간 설화와 이야기 문학을 집대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나 확실하지는 않다. 비록 작자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시공을 통해 존멸하고 변천했던 수많은 철학과 문학,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근본 문제 -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불러일으켰다.

16-17세기 명나라 무렵은 중국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경제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기였다. 화물 운송 통로로서 양쯔강과 운하가 갖는 지리적 이점과 황도皇都의 남하南下라는 정치적 요인의 상승 작용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인구의 밀집과 소비 및 유통 경제의 활성화, 출판업의 발전 등의 특별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문예의 번성도 생활의 수요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개중에는 어려운 경서와 역사책의 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교화教化’ 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철학자, 사상가들도 있었다.

당나라 중엽부터 도교의 권위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불교 - 특히 대승 불교 - 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불교가 도교와 유교는 물론 무속巫俗을 비롯한 각종 토속 신앙들과 결합하며 ‘중국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것은 이미 인도의 불교와 달라진 것임은 물론이고 특정한 기독교 세력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민간에서 도교와 불교는 선을 행하며 복을 기원

하기 위한 통로라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 신앙으로서 대승 불교의 유입과 전파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였다.

2). 이야기 구조

『서유기』는 당나라 초기의 고승 진현장陳玄奘(600~664)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면서 겪는 갖가지 경험을 변형시킨 것이다. 진현장은 혈혈단신의 몸으로 “관음보살”을 염두에 두고 「반야바라밀다경」을 외워 두려움을 이기며 용기와 신앙으로 불후의 업적을 남긴 실존인물이다. 당나라 태종太宗정관貞觀 3년(629)에 당시 스물여섯 살의 진현장은 국가의 금지령을 어기고 오늘날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하서회랑河西回廊’¹⁾을 통해 서역西域과 인도印度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17년에 걸쳐 50개가 넘는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657부의 경전을 구해 돌아왔다. 인도로부터 중국에 들어온 불교 사상은 위진 시대를 거쳐 수당 시대에 이르러 그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종파가 생겨났는데, 가장 유력했던 종파는 법상종·화엄종·천태종 등 불학의 정통 교파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장은 바로 법상종의 창시자이다.

서유기의 이야기는 크게 두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손오공의 탄생과 하늘궁전에서 벌인 난동, 그리고 석가여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당나라 태종 때의 재상 위징魏徵이 꿈속에서 경하經河 용왕의 목을 벤 일로부터 태종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사흘 만에 소생한 후, 죽은 영혼들을 제도하기 위해 불교를 진흥시키기로 결심하여

1) 난주에서 무위를 거쳐 둔황에 이르기까지 서역으로 향하는 복도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은 하서주랑 또는 하서회랑이라 불렀다.

삼장법사를 서역으로 파견하는 과정과 힘들고 기나긴 모험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에 고난이 끝난 후 삼장법사가 부처의 도를 깨달아 극락으로 가고 그 제자들도 각기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작품에서 관음보살이 저팔계와 사오정, 손오공으로 하여금 삼장법사의 길을 인도해 줄 제자로 안배하고, 삼장법사와 제자 일행이 서역으로 가는 도중에 '81년難'을 겪게 되는 기나긴 고행이 시작된다.

『서유기』는 다소 과장된 여행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구상된 전통적인 기독교 세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 심리를 통쾌하게 형상화한 불후의 고전이다. 이 작품은 사회의 계급적 갈등은 물론 개인의 철학적 고뇌, 종교의 제도적 문제 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마음의 미혹을 해결해주는 희망의 불씨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II.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1) 삼장법사

서역행의 중심인물인 삼장법사는 본래 부처의 제자인 금선존자金禪尊者의 화신으로 열 세상을 돌며 수행한 공덕을 쌓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구약 성서」의 모세처럼 어려서 강물에 버림받은 수난을 겪고 금산사金山寺 범명화상法明和尚의 구함을 받아 주어진 과업을 착실히 수행한 인물이다. 당태종이 내려준 그의 법호法號 - 본래 범명화상이 지어준 법명은 '현장호熒이다' - 인 '삼장'은 '대승삼장大乘三藏'의 준말이니 곧 대승불교의 경전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가 모험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관음보살이 현신하여 제시한 대승불교의 효능 때문이다. 불교에서 '승乘'이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라는 본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중생을 구제해 현실 세계인 차안此岸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에 도달하

게 하는 도구에 비유한다. 초월은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불교에서 인간을 세 종류의 '근기根機'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세 종류의 수행방법을 제시하는데,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이 그것이다. 흔히 앞의 두 개를 소승, 마지막을 대승이라고 한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동한 무렵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때부터 당나라 초기까지의 불교는 소승불교였다. '소승불교'는 종종 개인주의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삼장법사는 이러한 소승불교를 개혁하여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새로운 불교, 즉 중생의 제도라는 대승 불교를 도착하려는 시대적 사명을 띤 선구자로 상징된다.

'81년難'으로 상징된 그의 고난은 이러한 개혁을 방해하려는 기독교 계층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맞서 이겨낸 수없이 많은,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험거운 투쟁의 여정을 의미한다. '서방의 부처'란 결국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대승의 세계, 즉 모든 민중이 구제받은 이상향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삼장법사는 단순히 불법의 깨달음만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도道を 얻음으로써 초월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인간을 대표하며 마음의 주인心主인것이다. 또한, 경전을 얻지 못하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센 목적의식을 견지하고, 부귀공명과 색욕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계율에 충실한 승려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삼장법사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2) 손오공

『서유기』의 등장인물 중에서 다른 누구보다 손오공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다듬어지지 않은 본능에 따라 삶을 즐기고, 왕성한 호기심을 뒷받침하는 용기로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능력과 불로장생의 열망을 품고 미지의 바다 너머로 모험을 떠남으로써 신화적 영웅의 길을 걷는다. 바다는 대개 인간 세상의 지리적 경계이자 죽음의 공포가 넘실거리는 곳으로 여겨졌으니, 그 모험의 무게는 자아의

존재에 대한 비교할 수 없이 큰 시험이기도 하다. 또한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는 ‘노자老子’의 유명한 정언正言을 생각하면 바다는 지극한 선과 지혜가 모이는 궁극의 장소이니, 바다로 향한 모험은 곧 지혜를 얻기 위한 지난한 고행을 암시하기도 한다. 손오공이 수보리조사를 만난 곳이 영대방촌산 사월삼성동이다. 영대, 방촌은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사월삼성 - 비스듬히 기운 달에 별 셋 - 마음 ‘심心’ 자이다.

수보리조사와의 첫 만남에서 그가 얻은 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름이란 흔히 존재에 대한 인식의 통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니 손오공은 본능적 존재에서 ‘이성적 존재’로 변신하게 된다. 스승은 그가 원숭이(獼猴)를 닮았다는 데 착안하여 그의 성을 ‘손孫’이라 지어준다. 성姓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성性, 즉 수행을 통해 깨달아야 할 내면의 자질을 지닌 몸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그 성의 글자를 쪼개서 풀면 ‘아이(子)와 ‘계系’ - 중국어로 읽으면 ‘세細’와 발음이 통하는 - 로 이루어져 있으니, 곧 ‘영세嬰細’ - 작은 어린이 - 라는 뜻이 된다. 도가에서 “영아嬰兒”가 “내단內丹”²⁾을 상징함을 떠올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초월자를 향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수련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수 있다. 지어준 ‘오공悟空’이란 이름은 글자 그대로 불교에서 세계의 모든 현상(色相)을 관통하는 본질적 속성인 ‘공空’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름 앞에 없힌 성이 ‘모자람’을 뜻하는 ‘손遜’과 통한다.

손오공이 수보리조사에게서 배운 것은 그 안에 도교와 불교, 유교 등을 총망라한 광범위한 의미의

‘도’였다. 이에 따라 그는 정精, 기氣, 신神의 수련을 통해 ‘법성法性’을 깨닫고 ‘근원根源’을 다지는 공부를 하게 된다. 또한 72가지(8×9=72)이니, 결국 9×9=81에서 한 단계가 모자란 변신술을 익힌 상태에서 수행을 중단하고 추방당한다. 이런 추방은 본질적으로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손오공이 ‘여섯 도적六賊’을 때려죽인 것은 ‘육근六根’, 즉 모든 죄업의 근원이 되는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마음(意)의 욕망을 버림으로써 온갖 번뇌의 뿌리인 ‘육진六塵’, 즉 색(色), 소리(聲), 향기(香), 맛(味), 접촉(觸), 염려念慮를 없앴음을 상징한다. 다만 그러한 정화가 한순간의 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머리데’ - 제압장치로 표현하였다. 또한 가짜 손오공은 경전을 구해 영원히 빛날 업적을 쌓고 싶어 하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 손오공의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다.

특히 하늘궁전에서 소동을 벌인 손오공을 제압한 주체가 다름 아닌 석가여래이고 오행산五行山³⁾에 갇힌 점을 중시하여 도교의 수련을 통해 신선의 반열에 오르고 술법을 익혔으나 석가여래 앞에서는 그야말로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처럼 가소로운 존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설명함으로써 손오공은 교파敎派와 종파宗派의 구분을 넘어서선 통합적 종교적 수행의 넓은 의미의 ‘도’를 추구하는 순수한 존재임을 표현하였다. 서역을 향한 모험 - 도의 깨달음을 향한 수행 - 에서 손오공은 그 자신이 더 높은 초월자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수행하는 주체이자, 평범한 인간으로 윤회하여 다시 태어난 삼장법사를 서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도 하며, 수행자의

2) 수련을 통하여 오래 묵은 기氣를 내뿜고 신선한 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을 말하는 도가道家에서의 양생용어이다.

3) 다섯 개로 이루어진 봉우리이다. 동쪽은 목봉木峰, 북쪽은 수봉水峰, 토봉土峰, 금봉金峰, 화봉火峰이다. 즉 여래의 다섯 손가락인 토, 금, 목, 수, 화를 뜻한다.

마음을 구성하는 한 부분임을 상징한다.

아울러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혜의 깨달음은 공성(비어 있다)이기 때문이다.

3) 저팔계

『서유기』에서 저팔계는 본래 은하수의 천봉원수였으나 죄를 범하여 아래 세상으로 내쫓긴 후 돼지물골로 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신화 전설에서는 도랑과 하천을 관리하는 신을 돼지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의 본래 직책이 은하수의 수군을 다스리는 천봉원수로 설정되어 있다. ‘저팔계’라는 이름은 돼지의 속성과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 사이의 끝없는 모순을 함축적으로 품은 이름이다. ‘저豬’라는 성이 발음상으로 ‘거스른다’는 의미를 가진 ‘저摠’ 또는 ‘힘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阻’와 통한다. 그의 생김새는 재물과 음식, 여자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팔계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결점 속의 긍정적 측면 - 교활하면서 때로는 솔직하고, 게으르면서 때로는 부지런하고, 비겁하면서 때로는 용감하고 의로운 - 형상은 가장 평범한 인간의 심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결국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평범한 존재(肉眼凡胎)로서 인간은 대부분 모순적이고 부조화로 얽힌 결함들을 안고 살수밖에 없음을 제시한다. 저팔계는 인간의 탐욕과, 계율의 상징이다.

4) 사오정

삼장법사를 가까이 모시는 ‘시자侍者’ - 비서 - 로서 사오정은 겉으로 ‘튀지 않게’ 묵묵히 삼장법사를 보필한다. 사오정은 원래 천상의 권렴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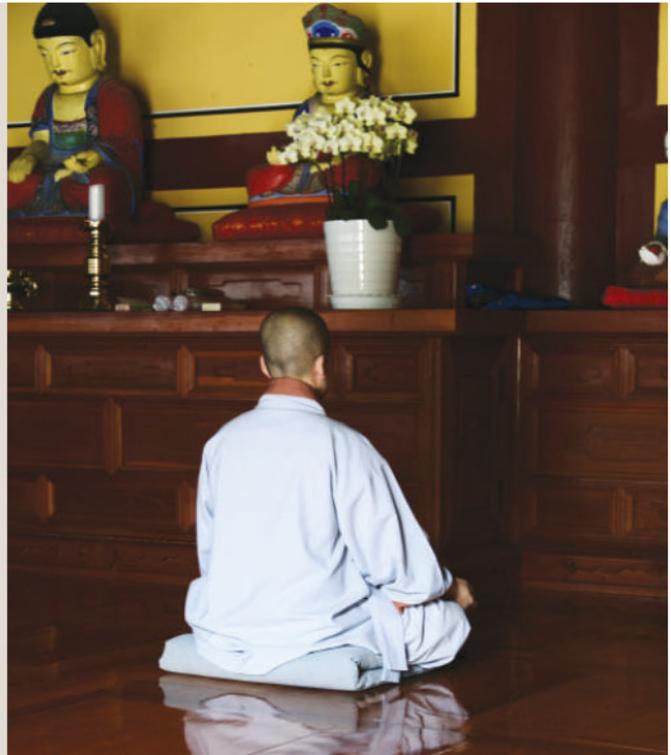
이었는데 ‘반도대회蟠桃大會’ 때 실수로 유리잔을 깬 죄로 아래 세상에 쫓겨나 유사하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다. 관음보살은 유사하流沙河의 모래를 따라 그의 성을 사하라 하고, 이름을 오정悟淨이라 지어 주었다. 여기서 ‘사하沙河’는 고비 사막을 가리키는데, 폭풍으로 휩쓸려 다니는 모래의 모습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서 ‘유사하流沙河’라고도 하고 거기에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거러기 것털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약수弱水⁴⁾’의 전설과 합쳐진다. 사오정의 이름에서 ‘사沙’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思’와 발음이 통하고, ‘정淨’은 그 자체가 ‘깨끗하다’는 뜻으로 ‘극락정토極樂淨土’를 뜻하기도 한다. 또 그의 이름은 ‘반도대회蟠桃大會’를 어지럽힌 죄업을 씻기 위해 청소와 정돈을 깨달으라는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 그가 청소하고 정돈할 대상은 바로 ‘마음’이다. 항상 온화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삼장법사의 번덕을 보완해주고, 저팔계의 투정을 들어주고, 손오공의 진심과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존재로 선정을 상징한다. 선정이란 고요함이고 마음의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

4)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고 하는 강으로 부력이 약하여 거러기 털조차 뜰 수가 없을 정도이므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한다.



수행자는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사람

조정욱



지난달 김제 금산사에서 특강할 때였다.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강의를 끝나면 인사를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어찌어찌하다보니 놓치고 말았다. 다음날이었다. 금산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공양을 마친 다음 귀신사로 향했다. 귀신사는 발음 소리만 들으면 귀신鬼神이 나오는 절로 오해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귀신사歸信寺이니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산사는 맞배지붕을 한 17세기의 단아한 대적광전과 함께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이 유명한 절이다.

그러나 내가 귀신사를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석탑 때 문이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귀신사삼층석탑은 정림사지탑의 유전자를 간직한 백제계 탑이다. 백제계 탑으로는 부여의 무량사오층석탑과 장하리삼층석탑, 공주의 계룡산남대탑,

조정욱님은 「엇그림 불, 법, 승에 빠지다」 저자, 미술평론가입니다.

서천의 비인오층석탑, 익산의 왕궁리오층석탑, 정읍의 은선리삼층석탑과 천곡사지철층석탑, 영암의 월남사지삼층석탑, 담양의 남산리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나는 원래 탑에 관심이 많아 거의 대부분의 탑은 현지에 직접 가서 보고 확인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귀신사탑만 실견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답사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귀신사만 빠뜨리게 되었다. 언젠가는 꼭 봐야지, 하면서 버르고 있었는데 마침 금산사에 오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귀신사탑을 꼭 보고 갈 예정이었다. 금산사에서 귀신사는 차로 십여분 거리에 있었다.

귀신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오르자 도량이 정갈하다. 이 절은 분명히 비구니스님이 제실 거리는 생각이 들었다. 비구스님이 계시는 절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야무진 손매무새는 비구니스님이 한 발 앞선다. 깔끔하게 단장된 도량에 들어오니 저절로 마음이 여려진다. 대적광전에 들어가 600여 년 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비로자나부처님게 절을 올리고 바깥으로 나왔다. 석탑이 어디에 있을까. 석탑을 찾아 대적광전 뒤쪽으로 올라가는데 명부전 뒤로 가파른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분명히 저 자리에 석탑이 있을 것 같았다. 답사를 많이 다니다보면 대략 어디쯤에 탑이나 불상이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순전히 ‘감’ 하나만 믿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구불구불하게 놓인 돌계단을 따라 발걸음을 향하는데 계단이 끝나는 언덕 위에서 스님 두 분이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한다. 아,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어젯밤에 내 강의를 들었던 스님들이었다. 내가 어젯밤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서 나를 알아보셨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못 드려야 쉬웠는데 반가웠다. 계단을 걸어 가면서 올라다보니 아름드리 나무 아래 스님 두 분이서 있는 풍경이 그야말로 작품이었다. 그 풍경을 놓칠 수 없어 연신 카메라를 눌렀다. 카메라를 누르면서도 혹시 스님께 걸레가 될까 우려했는데 두 분 스님은 오히려 기꺼이 포즈를 취해주신다. 석탑을 보러 왔다고 했더니 내려오는 길에 차 한 잔 하고 가라고 한다.

드디어 만났다. 내가 유일하게 실견하지 못한 백제계 석탑을. 두 분 스님이 먼저 내려가시고 남편과 나는 잠시 동안 석탑 앞에 섰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남인 만큼 그 감회가 남달랐다. 석탑은 여러 장의 돌을 바닥돌 위에 올리고 기단을 세운 뒤 3층의 탑신搭身을 올렸다. 역시나 이 탑에서도 백제계 탑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백제계 탑은 지붕돌의 네 귀퉁이가 살짝 올라가 곡선미를 간직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마치 무거운 화강암이 하늘로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이 든다. 또한 몸돌 아래에 놓인 괴임돌이 몸돌에 비해 매우 넓은 것과, 몸돌의 층급받침의 모서리를 날카롭지 않게 곡선으로 처리한 것도 백제계 탑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탑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 백제계 탑의 전통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탑 속에는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어느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탑을 구경하고 언덕을 내려갔다. 주지스님께서서는 기다렸다는 듯 차를 내오셨다. 멀리 순천에

계신 도반 스님이 보내온 귀한 차라고 했다. 주지스님 곁에 앉은 스님 역시 순천에서 오셨다고 했다. 얼굴 전체가 웃는 모습이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미소만으로도 불교의 자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듯했다. 차를 마시면서 내가 '도량이 참 정갈하고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지스님께서서는 그동안 불사佛事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갈등에 대해 말씀하셨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불사할 때는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어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몰라서 저지른 죄가 더 크다 하지 않는가.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 여기가 살면 살수록 좋다고 하셨다. 우리 출가인들은 정말 행복하다. 챙겨야 할 가족이 없으니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피워도 되는 사람이 출가인이다. 승복 한 벌만 있으면 되니까 사치할 필요도 없다. 물론 살다보면 마이너스 경계감을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공부할 때다. 우리가 무상으로 숨쉬고 사는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 자신이 너무나 기특하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선근공덕을 쌓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차를 마시면서 차를 따라주면서 주지스님의 법문은 계속되었다. 온전히 남편과 나를 위한 법문이었다. 살다보니 이런 행운도 누리는구나. 나도 많은 선근공덕을 쌓았음이 틀림없었다. 차를 마시는 도중 옥수수를 써서 내왔다. 우리가 점심 약속이 있어 함께 공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옥수수도 먹여 보내시려는 배려였다. 뜨끈뜨끈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다. 절을 나설 때는 책과 차 등을 바리바리 싸 주셨다. 나는 꼭 친정집에 왔다 간 사람처럼 귀신사를 나셨다.

스님과 헤어져 오는데 갑자기 상제보살常啼菩薩이 떠올랐다. 용수龍樹(Nagarjuna)보살이 쓴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상제보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다. 상제보살은 범어로는 사다프라루디타Sadapranudita로 살타파륜薩陀波倫이라 음역하기도 한다. 보자보살普慈菩薩 또는 상비보살常悲菩薩이라고도 한다. 상제보살은 항상 우는 보살이라는 뜻이다. 상제보살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전해진다. 어떤 사람은 상제보살이 어려서 울기를 좋아하였기에 상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상제보살이 대비심이 지극하여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거나, 가난하여 굶주리거나 늙고 병들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해 슬퍼서 울기 때문에 그를 상제라고 한다. 『반야바라밀다경般若波羅蜜多經』에는 또 다른 얘기가 적혀 있다. 상제보살은 본래 반야바라밀다를 구할 때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귀한 보배와 재물을 돌아보지 않으며, 명예를 좇지 않고 공경을 바라지 않으며, 반야바라밀다를 듣게 되면 그 생각으로 환희에 가득 차 너무 기쁜 나머지 영영 소리내어 운다고 되어 있다. 어찌 되었건 상제보살의 눈물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구도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수행자는 상구보리上求菩提, 즉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처럼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아니 생사윤회가 돌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 기꺼이 삶을 내던진 사람이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깨달음이 먼저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어야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전부가 아니라

는 것을 알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수행자에게 상구보리는 수행의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다. 상구보리가 빠진 수행자의 생활은 현실도피나 신선놀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구보리가 아무리 중요하다한들 하화중생下化衆生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에 불과하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상구보리 못지않게 하화중생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상구보리가 지혜라면 하화중생은 자비다. 상구보리만 추구하는 수행은 자칫 냉정해지기 쉽고, 하화중생만 쫓는 수행은 수행자의 위의를 상실하기 쉽다. 수행자는 상구보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하화중생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불법수행의 요체인 지혜와 자비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수행자는 지혜와 자비라는 양날개를 움직이면서 고힬의 바다를 헤엄쳐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 중생과 함께 가야 한다.

하화중생의 모델은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것이 상구보리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목숨을 걸고 정진해도 얻을까 딸까 한 깨달음의 세계를 탐진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단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명에 빠진 중생에게 법을 설해달라는 범천梵天的 권청勸講을 받아들여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전법의 길을 걸어 가셨다. 이것이 하화중생이다.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혼자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고 전법을 포기했다라면 독각獨覺은 되었을지언정 사생사부四生慈父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한 구도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이 성취한 결과를 중생에게 나누어주려는 자비심이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유전자를 몸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상관없이 우리가 불교의 세계에 귀의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부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마치 귀신사탑에서 백제계 탑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왕 부처님의 유전자를 가진 수행자가 되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수행자라는 이름에 붙잡혀 적당히 존경 받고 떠받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 진짜 깨달음을 구하고 진짜 중생을 부처님으로 떠받들어주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수행자는 업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력에 의해 이 지상에 내려온 사람들이 아닌가. 귀신사 주지스님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들여 차 한 잔 줄 수 있는 수행자. 상제보살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답답한 중생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 곁에서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수행자. 그런 수행자가 바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운문사 같은 훌륭한 도량에 계신 수행자들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다만 귀신사 스님을 뵈게 되어 몇 마디 적어보았다. 내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던 귀신사 주지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이시다. 🍎

자존감

법일 / 사교과



17

어스름한 새벽녘, 한없이 늘어지는 한낮, 애호박, 완두콩, 오이, 상추, 청매실, 징한 기름에 더디게 크는 푸성귀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온통 초록빛 천지 유월이 물들고 있다. 햇살에 부서지는 산사, 초록빛깔 호거산 풍광, 적당한 거리에 좁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채 감싸 안은 공간, 금당에서 금강경 수업은 담임교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만끽하는 시간.

요즘 스마트 폰을 넘어 스마트 워치, 스마트 블랙박스, 스마트 자동차까지 언제부턴가 밖의 세상에서는 디지털 문화가 사람들을 버리고 가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한다. 정보화 수준이란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을 말하는데 특히 장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56.3%로 저조했고 저소득층과 결혼이민자도 각각 일반 국민의 74.5%, 73.1%에 그쳤다. 밖의 사람들도 급격하고 복잡하게 빠른 이 시대에 행복도와 자기만족감이 턱없이 낮다는 조사가 만연한 가운데 어느 한 정신과 의사는 행복하게 사는 삶에 있어 무엇보다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는 무너졌고 보상 없는 경쟁과 불황, 문명의 발전으로 삶이 다채로워지고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해진 삶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취업은 더욱 짝퉁해졌다.

그 중 자존감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직업으로 비정규직, 전업주부, 서비스업(스튜어디스, 각종 상담원 등 감정의 노동자), 수험생 등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 너무 가까이에서 남들을 훑쳐보며 비교하고 사는 삶,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자존감마저 깎아먹을 정도로 삶의 가치와 경계가 모두 흐트러져 버렸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정신과 의사란 현실을 바라보며 ‘자존감’이란 키워드를 떠올려본다.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의는 정신과 의학에서는 self-esteem으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감정, 즉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이 있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을 뜻하고, 자만심이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과업을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자존감이라면 자존심은 이에 수반되는 감정, 즉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이 자존심이다.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나에게 묻는 질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반응에 쉽게 동요하며 늘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을 과소평가 하여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다.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오랜 시간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결정 장애에 빠져 결정하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우울하며 모든 것에 쉽게 좌절한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하는 딜레마를 안고 살아간다. 나에게 대해 존중을 우선하기 보다는 남의 시선과 남들이 내린 평가에 더 목매달아 한다.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져도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여 철저히 가면을 쓴 채 자만심을 갖고 살아가기도 한다. SNS를 통해 설 새 없이 타인의 행복한 모습, 타인의 잘난 모습을 구경하고 탐닉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서울대를 다니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착해야 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네의 고질적인 풍습이 마음의 병으로 남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를 받았고, 배려와 선행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거절할 줄 모르고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마음속까지 깊게 병이 들어 아픔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 있는 것일까? 살아 있는 꿈을 꾸는 것일까? 살아가는 것일까? 그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행복해지려고 절을 찾는 것이 아닐까. 행복해지고자 출가를 하는 것은 아닐까. 눈이 100개가 달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아르고스Argos는 눈이 100개라서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주의력 착각(부주의 맹신)인 우리들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는 버릇이 있다. 수행자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있는 지금, 우리는 자존감에 이상 없는가?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공부해도 일상의 변화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마치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뒤 다이어트에 관한 책만 읽고 “왜 나는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일까?”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타인을 이해하는 시각과 폭을 넓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토닥토닥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늘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며 무엇보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 스님들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좋아진다면 있는 그대로 상대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능동적이고 여유롭게 처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처로 서로 힘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을 달달 복지 않게 될 것이다.

한 방울의 물, 단 1분 1초조차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요즘, 대중과 운문사 도량을 위해 이목소에 직접 몸을 나뉜 우리의 용띠, 뱀띠생 스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여과 없이 내리쬐던 땀 약별이 호거산을 향해 적당히 뉘엿거리며 저물어 간다. 지금 여기는 운문사 금당, 여름의 문턱에서 법일 쓰다. ☸

내 목에 걸린 가시 - 忍辱

성경 / 사집과

‘인욕! 단순히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 속에 억울함이나 분함이 없는 참음, 그것이 진짜 인욕이다.’

‘진짜 인욕’ 을 접하는 순간 나의 가슴은 하루 종일 뚱뚱 울린다. 마음 속에 분노, 억울함이 없는 인욕이라니……. 아무리 곤욕을 당하여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참고 견디며, 여러 가지 모욕을 참고 받아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수행修行이 진짜 인욕!!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바로 마음 속에 억울함이나 분노가 없는 것!!! 그동안 해왔던 나의 인욕은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분노, 서운함 등이 남아 가시처럼 목에 따악 걸려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한채 짙짙 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부처님의 『본생담』에 인욕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포악한 가리왕이 어느 날 후궁들과 꽃구경을 나왔다가 한 선인이 법문하는 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겨 물었다.

“너에게 물겠다. 계戒란 무엇인가?” “참음입니다.”

⑥ “참음이 戒라면 너의 귀를 잘라 보겠다.”

하고 칼을 빼 귀를 잘랐다. 그러나 선인은 화를 내지도, 억지로 참는 기미조차 없었다. 더욱 화가 난 가리왕은 선인의 두 팔, 다리, 코를 베어 버렸다. 선인은 자신의 아픔보다 가리왕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앞섰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조약돌과 모래가 쏟아졌다. 사천왕이 포악무도한 가리왕에게 벌을 준 것이었다. 하늘의 노여움에 가리왕은 무릎을 꿇고 참회한다.

“선인께서는 이 참회를 받아 주소서”



“대왕이시여, 나에겐 탐욕과 노여움이 없습니다. 만일 나의 마음이 참되어 거짓이 없다면 나의 잘린 귀, 손, 발, 코가 본래대로 붙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붙었다. 이를 인욕선인이라 하며, 부처님의 전신이다.

말소사! 이것이 인욕의 경지라면 나는 도저히……. 마음에 품어 보지도 못하고 인욕을 포기해 버릴 것 같다. 나에게 해를 끼쳤으나 아무 원한도 탐욕도 노여움도 없는 경지, 과연 그러한 경지는 어떤 것일까?

이번엔 가장 위대한 참음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잡아함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자.

‘힘이 없으면서 힘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힘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참음이라 할 수 있으니 힘이 없으면 어찌 참고, 용서하겠는가. 남에게 온갖 모욕을 당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아내는 것은 가장 훌륭한 참음이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남이 나를 향해 불 같은 성질을 내더라도 돌이켜서 스스로 침묵을 지켜라. 약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가장 훌륭한 참음이다.’

모욕을 말없이 참아내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이긴다. 온갖 번뇌로부터 이긴다. 온갖 두려움, 자신 없음, 아만심, 의심으로부터 이긴다. 그 사람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멀게만 느껴지는 인욕행을 간신히 그림자라도 본 느낌이 든다.

또 성철 스님은 ‘공부인에게 주는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천대받고 모욕받는 즐거움이여! 나를 무한한 행복의 길로 이끄는도다.

남에게 대접받는 때가 나 망하는 때이다.

칭찬과 숭배는 나를 타락의 구렁으로 떨어뜨리니 어찌 무서워하지 않으며

천대와 모욕처럼 나를 굳세게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은혜가 아니라!’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천대와 모욕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이며, 마침내 참는다는 것마저 없어져 나를 열반의 길로 인도해 주는 은인으로 삼아, 즐겁게 받아들이라니! 참으로 통쾌하면 서도 어렵고, 가슴 서늘한 말씀이다.

인욕은 어떤 경지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인생이 무상하고 허황하며 일체 만법이 인연으로 흩어진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하면 모든 것이 공허하여 결국 성낼 것도 참을 것도 없어진다는 것! ‘당팔풍경當八風境하야 심부동마心不動塵’라고 묻는다. 내 목에 걸린 가시는 뽑힐 것인가.

즐거운 참음!!! 위대한 참음!!! 인욕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심下心과 자비慈悲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아만을 내려놓고, 억울함, 분노를 내려 놓아보자.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장 낮추어 엎드려보자. 가슴 한켠에 억울함으로, 분노로 가득 채워진 나만의 치부책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뜨끔해진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해명慧命을 잇기 위해 출가 삭발 염의를 한 만큼 ‘위대한 참음’과 ‘인욕의 즐거움’으로 수행자의 길을 오롯이 가야겠다.

若無忍行 萬行不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도욱 / 사미니과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인사하던 봄이 지나고 어느덧 푸르른 나뭇잎들이 햇빛의 쨍쨍한 빛을 받아 더욱 밝고 맑아 보이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운문사 승가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지금까지 예불에 참석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서 삼배를 하며 삼보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음에, 그 순간 감동하여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불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파도와 같이 요동치게 됩니다. 또 봄철을 겪고 여름철을 시작하면서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철에는 도반스님들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처음이기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함께 도와가면서 지냈습니다. 하루 하루 몸이 기억하는 습관들을 버리고 환경에 맞춰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익혀야 하고, 스님으로서 갖춰야 할 많은 습의들을 받으면서 생각이 일어날 틈도 없이 재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봄철이 가고 봄방학도 지나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봄철의 정신없던 시간을 지나 운문사 강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여유로움이 생기고, 시원한 장대비도 없는 여름을 맞으니 더운 날씨에 몸이 축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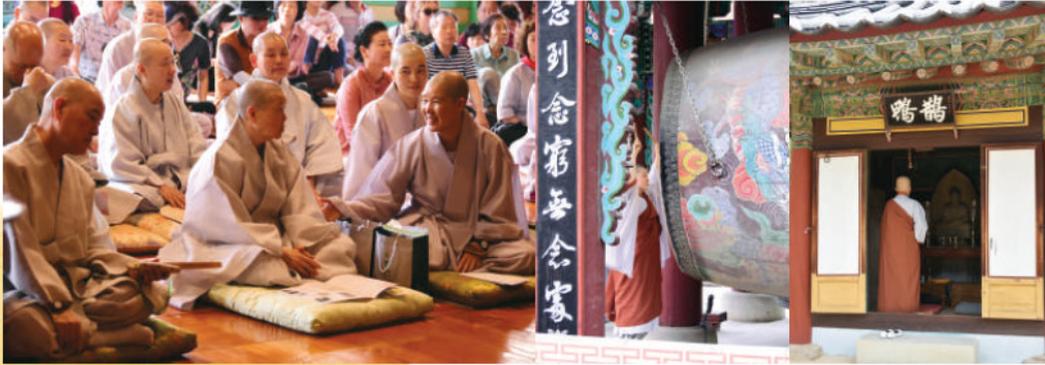
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스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생각 또한 약해져만 갔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이 곤두서서 주변을 힘들게 하거나 짜증을 낼 때도 많아졌습니다. 아픈 스님들의 소임은 본인들이 참고 해결하거나 다른 도반스님들이 기꺼이 도와가며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괜찮았던 스님들도 체력적 소모가 많아지고 건강에 무리가 가면서 서로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운문사에서 강원 생활의 적응은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주는 듯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걸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부터도 타인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 온갖 좋지 않은 망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순간의 이기심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거나 도반스님과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을 내세워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 함께 소임을 사는 순간 순간 타인을 보면서 왜 잘 못하는지 홀로 답답해하며 생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상반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에서도 내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구니와 같은 불청객은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예불시간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동하면서 그때, 그곳을 벗어나면 내면에서 지옥, 아귀, 축생계를 수십 번도 더 왔다갔다하니 말입니다. 참나에 일어나는 못난 생각들을 컨트롤 하지 못한 그 상황이 지나면 결국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운문사 강원 생활은 사실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려는 순간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운문사 도량의 많은 전각들의 부처님과 보살님들, 옛 선조 스님들께서 함께하심에 늘 감사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감사할 수 있고, 운문사 도량에서 늘 학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는 어른 스님들, 좀더 나은 승가대학 생활을 위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시는 상반스님들, 작년도 내년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법 아래에 같은 반 스님으로서 만나 모든 일을 기꺼이 함께 해주고 참나에 올라오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나누어 풀 수 있는 도반스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조단경』의 「돈교무상송」에 의하면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노라,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는 것은 내 그릇됨이 오히려 더한 증거라, 남은 그릇되고 나만 옳다 하면 남 그르다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허물, 다만 스스로의 그릇된 마음 몰리쳐 번뇌의 뿌리를 뽑아 없애버리면 밋고 고운 테 대한 관심이 없어져 두 다리를 뺀고 편히 쉬게 되리라(若眞修道人不見世間過 若見他人非 自非却是左 他非我不非 我非自有過 但自却非心 打除煩惱破 僧愛不關心 長伸兩脚臥)’ 라고 합니다.

순간 순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때에 한 생각 돌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건 어떤지, 지금 이 곳에 있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영양분이 되는지, 생각 바꾼 그때 이 도량에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공간에서 만난 모든 시절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가질 수 있다면 생활하는 순간 순간이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분향五分香

진과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매마름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되는 여름날, 차례법문을 하게 된 화엄반 진과입니다.

우리는 매일 향로마다 정성스럽게 가느다란 향을 태워 올리며 예불을 시작합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염하는 오분향례五分香禮. 여기에 담겨 있는 보다 자세한 뜻을 '달마관심론達磨觀心論'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마관심론'에서 2조 혜가 스님은 달마 대사께 불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지 여쭙습니다. 이에 달마 대사는 2조 혜가 스님에게 마음 보는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 보는 한 가지 법은 모든 행을 다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간단하고 요긴함이 됩니다. 만약 능히 마음을 알아서 도를 닦으면 곧 공들임이 적고 이루기 쉬우며, 만일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이에 공역만 허비하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별도로 구하는 것은 마침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써서 향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향을 사르는 것은 세간의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라 바른 법의 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더러운 때를 지우며 무명 악업을 끊어 마땅히 다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바른 법의 향이 다섯 종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분향五分香입니다.

'능단제악 능수제선 시명 계향能斷諸惡 能修諸善 是名 戒香.' 첫째는 계향이니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입니다. 계는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내 본성을 지켜주는 불교수행의 기본입니다. '선'과 '악'은 선택을 말하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불법승 삼보에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탐진치 삼독심에 휩쓸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이익되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 항상 살펴본다면 계향을 공양할 수 있습니다.

'심신대기 심무퇴전 시명 정향深信大機 心無退轉 是名 定香.' 둘째는 정향이니 부처를 이룰 자신의 큰 기틀을 깊이 믿어서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이 길에 대해서 믿음을 확고히 세운다면, 당연히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부처님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마음에 퇴전심을 낼 수 없습니다. 수행은 하면 할수록,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는 길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불법과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항상 잃지 않는다면 정향을 공양올릴 수 있습니다.

‘상어신심 내외관찰 시명 혜향常於身心 內外觀察 是名 慧香.’ 셋째는 혜향이니 몸과 마음의 안과 밖을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계향과 정향까지 지닌 사람은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의 안과 밖을 살펴보며 일어나는 번뇌망상, 몸의 느낌, 감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는 혜향을 공양올릴 수 있습니다.

‘농단일체무명결박 시명 해탈향能斷一切無明結縛 是名 解脫香.’ 넷째는 해탈향이니 농히 무명에 결박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혜향을 지닌 사람이 번뇌망상과 몸의 느낌,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끄달려가지 않고 즉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문수보살 지혜의 검으로 법이 아닌 것은 쳐내는 것과 같이 말이지요. 이것이 해탈향. 벗어나는 것입니다. 망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다음 번뇌까지 망상을 키워가지 않고 알아차린 즉시 끊어버리는 것. 몸의 느낌을 알아차렸다면 마음까지 괴로워지지 않도록 인정하고 그 이상의 생각은 끊어버리는 것.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여기에 휩쓸리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만두어 끊어버리는 것.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해탈향을 공양올릴 수 있습니다.

‘각찰상명 통달무애 시명 해탈지견향覺察常明 通達無礙 是名 解脫知見香.’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깨쳐 살피는 것이 항상 밝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에서 불도가 아닌 것은 알아차리고 끊어버리다 보면, 결국에는 지혜가 밝고 밝아져서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해탈지견향을 공양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자유로움이 있다면, 불보살님들처럼 지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다섯 가지 오분향은 세간에서는 비할 것이 없는 가장 높은 향으로써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값없는 보배 향을 피워서 시방일체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시고자 세상의 유위법으로써 무위의 이치를 나투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진실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안으로 행은 뒤지 않고 오직 밖으로 침수향, 전단향 등을 태워올려 복보를 희망하니 이는 옳은 일은 아닌 것이라, 어찌 바라는 바를 모두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달마 대사께서는 탄식하시며 마음 보는 법을 통해 법다운 향을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가지 좋은 공양구를 올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전에 무언가를 올리겠다는 마음만도 너무나 소중한지요. 하지만 수행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오분향까지 공양한다면, 정말이지 훌륭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지, 불법으로써 향기로운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성불인연 짓기를 발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암사 금색전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께 '이 세상, 부처님 세상' 되는 비법을 듣다

혜도, 명진 / 대교과



‘우리는 내적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간이라는 이름을 전적으로 감당할 만한 인간을 만날 기회를 가졌던가? 우리가 뜨거운 접촉과 대화에서 오직 그 인간을, 즉 우리가 되고자 원했을 인간을 알고 있었던가? 각자에게는 자기 영웅들과 자기 성자들이 있다. 각자는 이들과 동일시되기를 원했는데……그들이 행했던 대로 행하라.’¹⁾

출가하고, 그렇게 되고자 원했던 부처님처럼, 그분께서 행했던 대로 행하고 있었는가?

얼마 남지 않은 강원 생활, 4년을 열심히 살고 나면 속 시원하게 길이 명확해질 줄 알았다. 뭔지 모를 답답함이 엄습해 올 무렵 문경 봉암사 적명 스님을 친견할 기회가 왔다. 가자! 이 어둠을 몰아낼 태양같이 밝고 뜨거운 기운을 받고 싶은 열망이 일었다.

희양산(曦陽山), 햇빛 희, 별 양! 햇빛이 가득했던 날, 거대한 화강암 기슭에 한국 불교의 상징인 봉암사에 들어섰다. 넓은 도량은 고요하고 한적했다.

일생을 참선 남자로 살며 수좌들 사이에서도 ‘수좌 중의 수좌’로 불리시는 이 시대의 대표적 선지식 ‘적명 스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딱 알맞은 답을 얻고 싶었다. 탐심이 가득해도 모두 용서될 듯했다.

선지식 : 절에 와서 몇 년 됐으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을 것 같다.

학 인 : 예. 벌써 화엄반이고 강원 졸업을 앞봤는데, 성취한 것은 없고…….

선지식 : 죽을 때까지 그렇다. 그래서 제행무상이라고 안 했다. 끝까지 무상한 거다.

학 인 : 이미 답을 주셔서 질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지식 : 그래, 벌써 나와 버렸네!

모두 한바탕 웃으며 자연스럽게 시작된 말씀, 두 시간이 넘는 시간을 한 순간 같이 느끼게 해 주셨다.

선지식 : 부처님께서도 입으로만 무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도 무상을 겪고 몸소 보이셨다. 한 팔십 정도 되셨을 때 노장이 그랬다. ‘내 몸은 지금 늙은 수레를 가죽 끈으로 동여매고 끌고 다니는 것과 같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무너지셨다. 부처님께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상이고, 이 세상에는 성취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학 인 : 열반을 성취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선지식 :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인 줄 알고,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마음이 되면 그걸 열반이라고 하지. 중생의 근본이라고 설하는 애꽃와 욕정은 같은 거야. 좋아하고 사랑하면 욕망이 일어나고, 구함이 있기에 괴로움이 있다. 세상에 붙들려서 가만히 있어주는 놈이 없거든. 좋은 거면 남도 욕심내고, 뺏아가려고 싸움도 생기지. 아무리 좋은 거다 싶어도 결국 다 부서지고 없어지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모든 사물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실상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벗어나게 되지. 거울에 아무리 좋은 보배 꽃이 보여도 거기에 그걸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걸 가서 잡으려고 안 하거든. 잡으려면 뒤돌아서야지. 뒤에 진짜가 있잖아.

학 인 : 무상하다! 이런 것은 슬퍼요.

선지식 : 그건 무상의 뜻을 몰라서 그래.

1) 바르텔리미 마돌, 『베르그송 - 새로운 형이상학을 향한 모험』, 동녘, 2016, 196p.

학 인 : 저희가 받는 교육도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하는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불교는 거꾸로 그게 다 꿈이고, 이를 바가 없다 하고, 몸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모두 슬프고 그래요.

선지식 : 아이고, 똑같아 불교도 성취하고 이루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부처님께서서는 무상하다고 하는데 네 생각엔 무상하지 않고, 가치 없다고 하는데 네 눈에는 좋아 보이기만 하지?

학 인 : 네! 세상은 너무 좋은데…….

선지식 : 그러니까 너는 머리를 잘못 깎은 거야. 길을 잘못 들었어. 그 좋은 게 있는데 뭐 하러 머릴 깎았냐?

학 인 :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솔직한 답변에 우린 모두 당혹스러워하며 멧쩍게 웃었지만, 스님께선 더 깊고 친근한 어조로 우리의 근기에 맞춰 주셨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불교의 아라한들이 모범으로써 행렬을 지어 지나간다. 모범의 예는 모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정신적 에너지들은 강요하지 않고 끌어당길 뿐이다. 정신적 에너지를 발하는 자들은 명령하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현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현존이 호소다.’²⁾ 순간이지만, 스님과 같은 어른들께서 오래 현존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었다.

선지식 : 더 좋은 게 있지. 그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있다니!’ 무엇이든 받아들일 듯이 온 마음이 쓸렸다. 그 어릴 적 할머니 앞에 앉아 재미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리던 그때처럼, 모두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선지식 :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답고 잘난 머슴아들, 세상에 멋진 그림들, 음악들, 맛있는 풍경들 등등… 그런 세계만을 즐거움이라 느끼고 그것을 사랑하니까 영원히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마음을 밖으로 향하게 하거든. 항상 자기 자체가 아니고 자기 자체가 보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 갖고, 그것을 불교에서 바깥 세계, 육진의 세계라고 해.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대상으로 삼는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마음 자체에 오히려 깊은 행복이 있다.

마음 말고 실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마음을 제도하고 다스리면 일체를 제도하고 다스릴 수 있다. 굳이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세계가 사라지는 거야. 그걸 '열반' 이고 '해탈의 목표' 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이르러봤느냐 하는 거야. 이런 곳에 이르렀을 때의 낙락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행복하고 좋은 거다 하는 걸 모두 포기해도 안 아깝다. 그런 줄 알고 머리 깎고 사는 것이지.

라훌라의 출가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스스로의 깨달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느끼게 된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5~6년 됐을 때 카필라성을 찾았다 해. 그때 야소다라는 "저분께서 바로 네 아버지시다. 가서 이 세상 최고의 보배를 선물로 달라고 하렴." 하고 아들에게 시켰어. 인도 열대 지방 밀림 속은 모기, 뱀, 맹수 등등 지금도 거칠고 무서운 곳이니 그 당시 성인들도 생활하는 게 어려웠겠지. 이 세상 최고의 보배를 달라는 일곱 살 아들에게 '출가' 라는 보배를 주시고, 그곳에서 사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신념, 확신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며(自淨其意) 깨달음의 여정을 앞서 걷는 분께 수행자의 길에 대해 잠시 듣는다고 내 것이 될 수도 없건만 확신에 찬 길을 가시는 선지식께서 맞본 소금 맛을, 수행하며 겪으신 감정의 질곡을, 그분의 '절대적 체험' 3을 더욱 듣고 싶었다.

학 인 : 스님께서도 예전엔 염불 수행을 하시다가 한없는 경계를 2년 정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법을 하시다가 화두를 들기 시작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선지식 : 부처님과 불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을 뵈게 되고, 살아 계신 부처님 같아서 너무도 거룩해 보이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합장하고 부처님 주위를 돌고 그런다.

환희심 나는 밝은 광명을 보며 희열감이 솟구치기도 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의 세계들 등등이 보이고 느낄 수 있다. 능엄경 중 오십종변마장을 보면 내가 본 거 다 있어. 다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육식六識에서 나온 심상이 현상화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 돼. 자기 모습일 뿐이라고 이해하면 아무 상관없이 즐겨도 돼.

25살인가 염불 수행하다 나와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어. 경봉 스님, 동산 스님, 설봉 스님 뵈고 어른스님들 여러분 뵈고 공부의 길을 여쭙었더니 노장님들께서 모두 이렇게 설명하셨어.

"관이라는 것은 활같이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다. 화두 참구하는 것은 활 줄같이 바로 치이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화두 들 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것이 있어가지고 놓고 싶지도 않고, 경험에 대해 자부심도 있고, 화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선뜻 화두 들 마음이 안 났어. 절요를 세 번이나 읽고 나서 논리적인 내용에 감탄하고 마음이 쓸렸었기 때문에 화두 들 마음을 그때 냈다.

26살 때 처음 화두를 들기 시작했거든. 내가 관했던 게 있으니까 화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나는 화두가 힘들다 하는 이들에겐 기본적으로 집중을 도모한다는 뜻에서는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관도, 염불도, 남방 관을 해도 좋다 한다.

관법은 사선정을 다 성취해도 항상 앞에 대상이 있어. 집중력이 깊어지고 관을 성취해서 깊어지더라도 항상 니미타라는 표상이 있고,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 근데 화두는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아. 물론 화두도 염불도 관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광명이 뿜쳐 나오는 게 같아. 그게 고비야. 그게 빛을 내기 시작하면 삼매에 들기 시작한다. 마치 구름 속에 가려진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청정 도론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어쩌다 망상이 한번 일어나도 니미타가 순수하게 지속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중이 된다는 것은 희열을 느낀다는

2) 바르텔미 마돌, 『베르그송 - 새로운 형이상학을 향한 모험』, 동녘, 2016, 196p.

3) 김성철, 『붓다의 과학 이야기』, 참글세상, 2014, 176p.

"내가 맞본 소금 맛을 남이 알 수 없고, 내가 맡은 국화 향기를 남이 알 수 없으며, 내가 겪어온 감정의 질곡을 남이 알 수 없다. 모두 남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체험' 들이다."

것이고 자리가 잡혔다는 뜻이다. 딱 내 앞에 관이 나타나 내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일념이 되거든. 그러면 공부에 득력했다고 하는 경계야. 이럴 때는 가만히 화두로 바꾸라고 권해.

화두와 관법은 차이가 있어. 화두는 득력을 해서 화두가 제대로 현전하면 그 능소가 없어. 왜 그러냐하면 화두라는 건 의심하는 거야. 의심은 알 수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 알 수 없으니 알려고 하고, 알려고 한다는 건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거든. 그런데 모른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야. 확정된 대상이 없어. 뭔가 확정돼버리면 그건 뭐구나 하고 아는 상태지. 즉 인식하는 상태지.

우리가 밤에 혼자 산길을 가다가 무시무시하잖아-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걸음을 멈추잖아. '뭐지?' 하고 알려고 하고 의심하는 것,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때문에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위험을 느껴잖아. 뭐가 있는지 모르곤 무작정 갈 순 없잖아.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몸이 멈추고, 마음도 따라 멈춘다.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상태에서 친구, 돈, 연인 등등 이런저런 생각은 할 수가 없거든. '일어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심하는 게 없는 상태냐? 아니지. 최고로 깨어 있는 열려 있는 의식상태라고 말할 수 있거든. 의심이 제대로 되는 순간에 화두도 똑같다. 딱 '뭐지?' 하고 멱혀가지고, 알고 싶은 알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가 멱히는 상태가 되면 거기에 능소가 끊어져 버린다. 멱혀서 끊어지는 곳에는 화두 이외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냥 의연한 의심 덩어리 하나만 있게 되는데, 자기가 최고의 의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

관은 대상이 있고서야 관할 수 있으니, 일념이 돼도 일념의 대상과 그걸 의심하는 마음이 항상 현전해. 그러나 의심은 대상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르고 추진력이 있다. 훨씬 힘찬 게 있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옛사람들께서 화두를 경절문徑截門이라고 했어.

학 인 : 어려워요

선지식 :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화두의 단점이 뭐냐면 어려움이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능소가 끊어져버리는 의식 상태는 일찍이 체험해본 일이 없어. 잠깐은 그런 의식을 경험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의식상태가 지속성이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귀로는 뭔가 듣고, 항상 보고 듣고 대상을 가진 세계, 능소가 있는 세계, 상대적인 세계에 익숙해 있어. 관을 하는 게 왜 쉽냐면, 늘 보잖아.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거나 눈 감고서 마음속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나 눈만 감았지 똑같이 본다. 눈 감고 봐도 눈 떠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서 보는 대상이 꼭 지켜보는 마음이 있지.

관법이나 염불은 일상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의식이 토대가 돼서 해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쉽게 느껴진다. 그만큼 익숙해지기 쉽지. 근데 화두는 일상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 적 없는 그야말로 앞뒤가 끊어져버리고, 상대성이 사라져 버리는 의식세계에 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게 느껴진다. 이게 화두의 단점이야.

그러나 깨달음을 지향하려면 관을 통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그 상태에서 관의 대상에다가 화두만 살짝 갖다 두면 되거든. 화두도 처음엔 대상이 있게 된다. '왜 무라고 했는가'라고 그 무라고 하는 게 앞에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 의심이 콧 꽃힌다. 자기도 모르게 쏘리는 순간에 의심이 일어나면, 그 순간 비로소 능소가 끊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절대적인 상대성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서 화두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학 인 : 화두가 지름길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시간이 또 오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화두 받아가고 싶습니다.

선지식 : 내가 여태까지 화두를 누구한테 줬 본 적이 없다. 내가 안 주는 변은, 선지식이 화두를 주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를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이 화두라는 거칠고 험한 산인데 내가 올라가서 어떤 지름길이 있고 어떤 어려움의 험처가 있는지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와서 물어라. 나는 이미 잘 아니까,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는 약속과 같다.

둘째, 화두 산꼭대기까지 가봐서 아는데, 잘못하면 말이지 꼭대기 아닌 곳을 꼭대기라고 착각해서 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왔다 싶으면 정말 깨달았다 싶으면 그때 와라. 정상인지 아닌지를 내가 증명해 주마.

이 두 가지는 선지식에게도 중요한 것이니, 가급적이면 친하면서 존경하는 선지식이 있으면 그분께 가서 화두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 선택해도 된다.

내가 젊은 스님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는데 공부하다가 잘못다, 아니다, 의심나는 거나 어떤 경험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서 의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서로 이야기하자 그런다. 언제든지 와라. 그러니까 화두 받으려는 욕심은 접거라.

화두를 들고 싶고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면 화두에 인연이 있는 이고, 오히려 관보다 더 처음부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화두 해보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안 맞는 거 같고 답답하고, 안 되면 심중팔구 상기병 생긴다. 너무 힘들고 하면 그때 관법으로 시작해 봐도 돼.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깨달는 거니까 쉽고 여유롭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가파르지만 바로 닿는 길이 있다. 선택은 자기 몫이고, 스스로가 해야 하는 거다.

정말로 화두에 일념이 되기 시작하면 몸 자체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몸이 하려고 안 해도 자절로 허리가 펴져가 있고, 숨도 깊고 고요하게 쉬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익히되 화두에만 전념해라. 중요한 것이 의심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 인 : 화두를 어떻게 의심해야 하는지, 비법이 있는지요

선지식 :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부처 세상’ 됐지. 그걸 안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해서 그렇지 아주 편안하고 쉬운 거든. 바로 ‘반복하는 것’ 만이 화두를 드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이런 비유를 늘 이야기하거든.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다. 출퇴근하기 위해서 같은 골목을 다니며 많은 사람과 마주치게 된단 말이야. 다 모르는 얼굴들이니까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면 되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반복되면서 익숙해져서 아는 얼굴이 된다. 그러면 물란결에 아는 체하거든. 눈을 맞추기도 하고 한 번씩 웃어주기도 하고 가볍게 인사도 하게 되지. 버스 기다리며 같이 앉아 있거나 하면 말을 건다.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겨서 자연히 알고 싶어 한다.

화두도 똑같다. 화두도 처음에는 전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마음이 안 가고 흘러가버리고, 관심이 안 가니까 망상이 들어오면 그게 주된 노릇을 하네. 그러니까 방법은 입거나 끊거나 대면하는 거야. 자꾸만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알아차리게 되거든. 처음 진의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내가 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지? 내가 왜 이걸 제대로 의심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지.

의심은 의정疑情이라고 하잖아? 의정이 진의가 일어난다는 말은 의심이 감정화가 된다는 말이야. 그냥 생각만으로는 머무르지 않지만, 감정화가 되면 지속성이 있어. 감정은 우리 의식보다도 심층 의식에 속해.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어, 정말 뭐야?’ 하고 감정적으로 탁 받침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그런 감정으로 치받치는 일은 반복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좀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으로 지배하려고 해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화두의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 특별한 왕도, 지름 길은 없고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눈길을 주고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야.

학 인 : 교학하고 참선 중에서 같음이 됩니다. 교학과 참선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선지식 : 내 생각에는 사람마다 자기 업이 있어. 업은 쉽게 어길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어느 한순간 마음이 바뀌어 느닷없이 중이 돼가지고 중노릇하게 된 거 생각하면 자기 길이 있었던 거야. 진로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한테 묻고, 답이 안 나오면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다 보면 나머지 하나도 따라오게 돼 있다.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스스로 최상의 선택을 자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마라.

두 시간이 넘는 시간이 한순간 같이 지나갔다. 뵈고 온 지 꽤 되었는데 고요하면서도 가라앉지 않는 깊은 울림이 있는 편안하고 유쾌한 목소리, 앞서 걷고 계신 길에 대한 확신 찬 기운!

출가 후 고작 몇 년 지나고 안이해지려는 우리에게 수행자의 길을 깨우쳐 주신 귀한 말씀들을 모두 전할 수도 없거니와 추려서 전달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 글을 정리하는 내내 ‘좋은 친구를 만나 즐거울 때처럼 시간 밖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었다.’⁴⁾

스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화두를 들리라.

‘모두 남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체험’ 들……상대성을 초월하여 누구나 우주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방식이고 부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이다. 우리 모두 따라야 할 절대적 삶이다.’⁵⁾ 그래! 부처님처럼, 선지식들처럼 ‘절대적 삶’을 살아 보리라.

그리하여 이 세상, 부처님 세상이다. 🍀

4) 법정, 『무소유』, 범우사, 1990, 25p.

5) 김성철, 『붓다의 과학 이야기』, 참글세상, 2014, 17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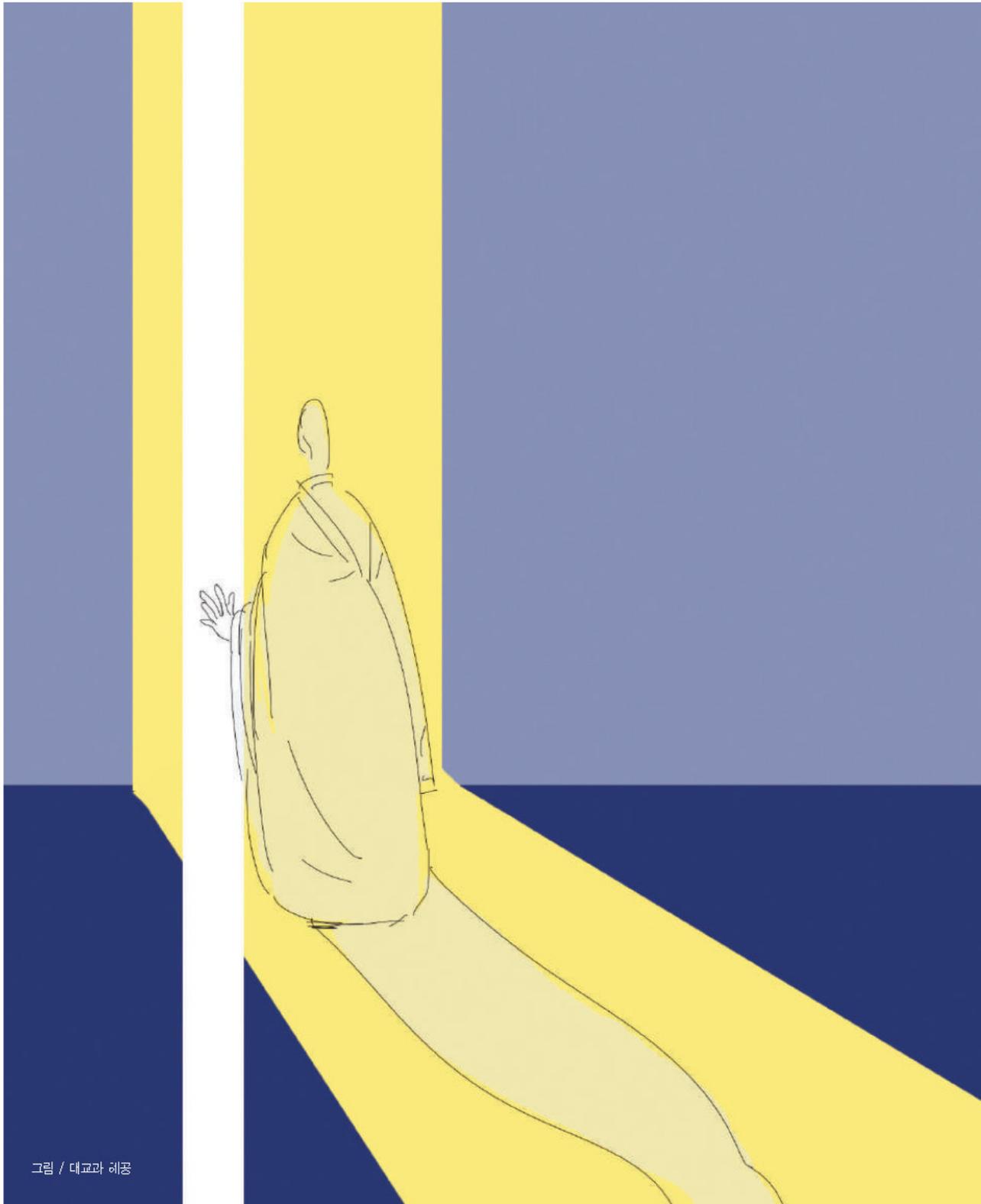


그림 / 대교과 레공

순치황제출가시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어나
대장부 어디 간들 밥 세 그릇 걱정하라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알지 마소
가사 옷 얻어 입기 무엇보다도 어려워라

이내 몸 중원천하 임금 노릇 하건마는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인간의 백년살이 삼만 육천 날이란 것
풍진 떠난 명산대찰 한나절에 미칠손가

당초에 부질없는 한 생각의 잘못으로
가사 장삼 벗어치고 곤룡포를 감게 뵈네
이 몸을 알고 보면 서천축 스님인데
무엇을 반연하여 제왕가에 떨어졌나

이 몸이 나기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뒤 내가 과연 뉘기런가
자라나 사람노릇 잠깐동안 나라더니
눈 한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뉘기런가

백년의 세상일은 하룻밤의 꿈속이요
만리의 이 강산은 한판 노름 바둑이라
대우씨 9주 굿고 탕임금은 절을 치며
진시황이 6국먹자 한테조가 새 터 뉘네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 살 복 타고 났으니
자손을 위한다고 말 소 노릇 그만하소
수천 년 역사 위에 많고 적은 영웅들아
푸른 산 저문 날에 한줌 흙이 되단말가

을 적엔 기쁘다고 갈 적에는 슬프다고
속 없이 인간에 와 한바퀴를 돌단말가
애당초 오잖으면 갈 일조차 없으리니
기쁨이 없었는데 슬픔인들 있을손가

나날이 한가로움 내 스스로 알 것이라
이 풍진 세상속에 온갖 고통 여월세라
입으로 맛들임은 시원한 선열미요
몸 위에 입는 것은 누더기 한벌 원이로다

오호라 사해에서 자유로운 손님 되어
부처님 도랑 안에 마음대로 노닐세라
세속을 떠나는 일 하기 쉽다 말을 마소
숙세에 쌓아놓은 선근없이 아니되네

18년 지나간 일 자유라곤 없었도다
강산을 뺏으려고 몇 번이나 싸웠더냐
내 이제 손을 털고 산속으로 돌아가니
만 가지 근심 걱정 내 아랑곳할 것 없네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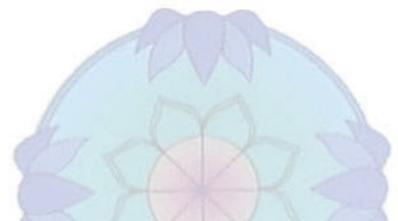
2017년 제15차 홍콩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를 다녀와서

6월 21일부터 ~ 7월 1일까지 10일간의 참관기

덕범 / 대학원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가뭄을 안고, 물이 많은 나라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제15차 홍콩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공식일정과 29, 30일의 휴식 일정까지 10일 간의 짧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샤카디타는 '붓다의 딸'이라는 뜻으로, 1987년에 설립된 불교여성들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회는 1987년 2월 인도 보드카야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부처님 법에서 여성과 관련된 특별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길을 열어보자는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세계 45개 회원국이 활동 중입니다. 샤카디타 대회를 통하여 전 세계 불교여성들의 깨달음, 화합 그리고 지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2일, 대회의 개막식 날입니다. 대회장인 홍콩대학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는 빌딩과 빌딩으로 이루어진 대학이었습니다. 운문사의 숲속에서 살다가 빌딩 숲속에 처해지니 낯선 이국의 풍치가 습하고 더운 열기만큼이나 혹 멀미를 느끼게 했습니다.

개회식이 열린 그랜드홀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4월에 운문사를 방문했던 미얀마 불교대학의 딸라신 여덟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대회 동안 건강히 잘 지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회 회장인 텐진 팔모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이 이 사회에 보여준 정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신이며 부처님의 딸과 아들들이 이곳에 오심을 환영하며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후 다시 보니 이제 노스님이 되셨지만, 비구니 상가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은 여전히 청년이신 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카디타를 이끌어 오신 소모 스님은 대회를 통해 이 대회는 우리에게 수행을 제공해 주고 여성불자들이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인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불자들 : 마음공부, 문화교류 그리고 사회적 실천”에 어울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개회식 후 1시부터 시작된 첫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27일까지의 일정은 아침 명상, 오전 학술발표1, 점심공양, 오후 학술발표2, 3시부터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그리고 5시 저녁예불과 7시 이후 다양한 문화공연들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홍콩은 아편전쟁의 패전으로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97년 7월 1일 다시 중국에 귀속되어 1국 2체제를 취하여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도교와 불교신자가 많은 것 같지만 고위관료 상당수가 기독교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동안에 저녁 공양청을 뜻하지 않게 받곤 하였습니다. 장소가 대학교이다 보니 저녁공양을 참가자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시락을 사러온 불자들이 공양청을 하여 우리는 각자 합장주 등을 풀어서 고마움을 대신하였습니다.

24일, 운문사 49회 졸업생인 선지 스님의 점심 공양청을 받았습니다. 선지 스님은 홍콩 출신으로 승산 스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 출가한 스님입니다. 스님이 머무르는 수봉선원은 홍콩 번화가 빌딩에 자리한 한국 사찰입니다. 스님의 은사스님이며 선원의 주지인 향엄 스님은 승산 스님으로부터 직접 주지 임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향엄 스님은 한국의 간화선 정신을 그대로 살려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도들도 한 시간씩 선원에서 정진하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명상과 참선에 관심이 많다고 들으니 한국불교의 힘이 여기에서 발휘되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25일, 3시의 워크숍에서 '비구니 승가에서의 생활과 수행 : 중국 한국 및 대만' 을 주제로 유덕 스님이 운문사 다큐 영상을 준비하여 영어로 발표하고 조은수 교수가 다른 팀의 발표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참여대중은 자급자족하는 생활과 힘 있게 하는 울림에 감명을 받고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 비구니 스님의 독립된 지위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의식 집전, 교수활동, 법문 등에 자유로움이 있는 우리 승단의 장점을 새삼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하게 진행된 워크숍 중에서 봉녕사 학인 스님들이 1년여를 준비한 '한국 불교의 계율정신' 은 한국의 비구니 스님이 되는 과정을 3일 동안 세세히 보여 주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반면 티벳과 테라바다 교단에 출가한 서양 출신 수행자들의 열악한 교육과정과 종단의 지원이 전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을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테라바다와 티벳의 비구니 계맥을 살리기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난제입니다. 저녁에 한국팀의 저녁예불이 운문사의 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온온한 경쇠의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28일, 덩고 습한 바깥과 냉방이 되어 있는 행사장을 오가다 보니 힘들다 할 무렵 대회 종료일이 되었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우리는 기금을 마련하여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스님들과 스리랑카 비구니 승단에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각국의 회향식에서 한국팀은 사카디타 한국 대표인 분각 스님의 선창으로 목탁에 맞추어 회향계를 합송하였습니다. 그윽한 음성공양으로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폐막식에서는 30년 동안 사카디타를 이끌어 온 소모 스님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132개국에 참여하고 1,0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한 자리가 될 정도로 큰 대회로 이끈 스님에 모습이, 현장에서의 보현보살을 보는 듯했습니다. 행동하는 수행자,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2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15차 홍콩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29일, 우리는 선지 스님의 안내로 지하철을 타고 천대 대불天壇大佛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좌불상인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산 아래 보련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만불전의 화려한 단청이 아름다웠습니다. 이후 허운 선사가 법문을 하셨다는 비구니 사찰인 중국절을 지나 각수사 국제선원을 찾았습니다.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반야심경을 봉독 하였는데 선지 스님이 반야심경 봉독 소리가 정말 좋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운 소리라 하였습니다. 잠시 앉은 좌복 위였지만 한 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습한 환경 속에서도 청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원에서 마련해 준 차담을 하며 이번 대회의 소회를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긴 일정 무탈하게 지낸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중 어른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 감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불교에서 대표성을 가진 한국불교 비구니회와 운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운문사의 대중으로서 나는 어떻게 세계불교와 소통할 것인지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비구니로서 자긍심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거듭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어른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라훤라 존자를 맞이하며

지안中 / 사교과



제38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훤라는 불교 최초의 어린이 불자이자 12살에 출가한 동진 출가자입니다. 라훤라는 태어난 지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훤라의 어머니 야소다라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만나면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카필라 성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라훤라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구하며 그분의 가사 자락을 따랐습니다. 니그로다 승원에 도착하자 부처님은 사리불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사미를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사리불 존자는 라훤라의 전계사가 되었고, 목련 존자는 삭발을 해주었으며,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낱알이 알려주며 라훤라의 습의를 자칭하였습니다.

지난 운문사 여름불교학교를 통해서 수계식을 받은 160여명의 라훤라 존자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에 귀에 걸리는 입꼬리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불교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화부 스님들은 수개월 전부터 어린이 법우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참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는 ‘팔정도’를 주제로 한 ‘8路! Follow me!’를 슬로건으로 하여 제38회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팔정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은하철도 888!’과 팔정도를 모티브로 한 8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운문사 탐험 프로그램 ‘운문사 팔도유람’ 등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마법의 성’을 개사해서 만든 운문사 주제를 합창하기도 하고,, 팔정도로 지은 여덟 가지 반 이름에 최신 가요나 CF의 멜로디로 멋진 반구호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쁘고 선한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새로운 가사를 입힌 반 구호를 큰 소리로 함께 부를 때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찬불가 울동, 솔바람 길 걷기 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 등은 익숙하지만 할 때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특히 각 반 구호는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운문사 여름불교학교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불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저마다의 신행생활을 이어갑니다. 지역 사찰에서 자비참 기도를 하다가 “아빠! 술 마시면 똥물 지옥에 태어난대!”라고 훈계하는가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글짓기 대상을 받는 등 실로 어린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살며시 와서 ‘스님, 힘내세요!’라며 든든한 응원의 말을 건네는 친구,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쫓긋 세우는 친구, 산뜻한 솔바람 길 산책 시간에 개울을 건너다가 신발이 축축하게 젖었는데도 ‘사나이이라면 이 정도쯤이야!’라는 친구, 한 번 시작한 108배를 꼭 채우고 싶어서 정성스레 염주알을 꿰며 포기하지 않는 친구, 너도 나도 손을 들며 그날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표하는 친구들, 티 없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친구들….

어린이들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 천진불의 모습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이들의 잠자리도, 매 끼니도 스님들의 생활공간과 시간을 모두 내놓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각자 생활하던 보급자리보다는 부족했을 터. 또한 익숙지 않은 단체 생활이 많이 불편하기도 했을 법한 아이들은, 힘이 들긴 했지만 배운 것이 더 많았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피로해소보다도 더 빠르게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키고 힘이 불끈 샘솟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전 첫 머리 혹은 마지막 구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대중들이 환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햇살처럼 웃고 있는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려주는 자원 봉사자들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한다는 진리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막한 호거산 한 자락에 어린이 범우님들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배움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름불교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법문이 무궁무진하기에 선배스님들로부터 몇 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2박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은 묵어갈 요량인 듯 큼지막한 가방을 지고 내년 여름 다시 운문사를 찾아올 어린이 범우님들을 “절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시다.”

일탈



우리는 가끔 지극히 이기적인 기준에서 불만족스러운 고통을 말할 때가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고통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을까? 또 하나의 이기적인 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며 일탈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이고, '너'는 어디까지가 '너'인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오직 나만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속에서 일탈해야 한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 오늘과 비슷할 것 같은 내일, 평범한 일상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과업을 이루고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가지만, 가끔 일탈을 꿈꾼다. 늘 보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늘 먹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듣던 것, 만지던 것, 내 두발이 서있는 곳까지 다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된다.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가더라도 순간 달라진 환경에 의지해서 즐거움과 휴식을 경험하려한다.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는 좀 다른 방식의 일탈을 감행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현재를 만족하지 못해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한다. 이 불만족의 상태인 괴로움이란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 또는 그런 느낌'을 말한다. 우리는 가끔 지극히 이기적인 기준에서 고통을 말할 때가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고통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을까? 또 하나의 이기적인 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탈을 꿈꾸지만,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이고, '너'는 어디까지가 '너'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짓고 분별하는 마음을 자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직 나만이 기준이 되는 삶에서 진정한 일탈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인간의 고통을 자각하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부처님의 일탈 또한 깊은 내면을 찾아가는 여행이

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근본 괴로움에 대한 자각과,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야 하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이 든다. 이런 순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과 뜻처럼 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자각을 통해 괴로움을 가만히 지켜보면 곧 평소와는 다른 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자각인가?

아직도 전세계 98%의 농부들이 기계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수로시설이 없어 물뚝이를 머리에 이고 먼 거리의 길을 걸어서 날라야만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목화 재배시간이 미국에 비해 2000배나 더 들지만 그들이 수출한 목화는 헌옷으로 기부되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온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도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들은 문명의 이기 속에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에 가까운 듯하다. 이렇게 인간의 분별로 인해 지구는 디자인 되고 있지만 '나'만을 위한 소견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자각해보면 많은 조건들의 만남으로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여름 시원한 수박처럼 달달하기만 할 것 같은 날들도 시간 속에서 무상하게 변해가고, 바짝 타들어가는 가뭄 속의 말라버린 강물도 시원한 빗줄기로 이내 불어난다. 이처럼 세상은 '나' 밖에서도 순리대로 그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나를 위하거나 남을 위하거나 우리를 위하거나 그런데 이것이 왜 내 삶에 괴로움으로 찾아오는 것인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곧 세상은 인드라마처럼 연결되어서 분별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나의 '무지'를 보게 되고 '무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알게 된다. 결국 사소한 작은 불만족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을 확인하게 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라는 말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모색해 가는 과정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상상으로 그려보던 미지의 세계, 그것과의 만남은 늘 사람에게 질문과 호기심을 준다. 지구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서도 나를 찾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고, 높은 산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도 나를 알게 되는 새로운 경험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내가 사는 세상을 잘 여행하려면 나의 익숙한 마음속으로부터 일탈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으레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다 해 보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본다. 이 즐거움은 진짜일까? 혹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은 아닐까. 🍀



▲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



▲ 단오산행



▲ 하안거 결제



▲ 학술대회



▲ 학인스님의 차례법문

운문소식

- 5월 30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일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에 학장스님을 비롯한 어른스님과 학인스님 약 60여 명의 대중이 다녀왔습니다. 설법대회에 참가한 화엄·사교·사집반의 학인스님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 6월 5일 단오산행이 있었습니다. 이날 화엄반은 현존하는 불국토라 불리는 경주남산을 답사하였고, 다른 반들은 학소대와 사리암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9일 하안거 결제제사가 대웅보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6월 10일 운문사의 정보문화재와 보존방향 학술대회가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6월 10~11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제6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지원자 42명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11일 행복올림 음악회가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열렸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앉은 사부대중은 동·서양의 음악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18일 오후 1시 대웅보전에서 일진 학장스님의 단주로 포살을 봉행하였습니다.
- 6월 21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불자들, 마음공부, 문화교류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홍콩에서 개최된 제15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에 6월 21일~7월 1일(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원효 교수스님·원법 교수스님·동우 편집국장스님을 비롯한 10명의 대학원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7월 2일 교화부에서 대자원 법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자원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7월 4일 제주도 동법사 33회 졸업생 정묵 스님 은사스님 5제가 대웅보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7월 7일 학인스님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9일 대웅보전에서 마포 석불사에 주석하셨던 비구니 원로 은적당 법운 스님의 4제가 많은 문도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참석하에 봉행되었습니다.
- 7월 24일 대안 원도선원에서 80화엄경 160절을 운문사승가대학에 기증하는 봉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안내는 천곡사 주지스님께서 해주셨고, 44회 졸업생 무구 스님이 동행하였습니다.
- 7월 28~30일 팔경도를 주제로 한 제38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8路! Follow Me!'가 2박3일간 열렸고, 160명의 어린이들이 수제를 받았습니다.
- 7월 31일 자자 및 방학공사가 있습니다.
- 8월 1일 ~9월 12일 42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이기태
- 정해옥
- 하옥희
- 윤덕자
- 장익수
- 최호영
- 수미정사
- 김정애
- 이정숙
- 김상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수처작주 입처개진

『입제록』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모두 참된 것이 된다. 어떤 경계가 다가온다 하여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목은 습기와 무간 지옥에 들어갈 다섯 가지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 절로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할 것이다. 요즘 공부하는 이들은 모두들 법을 모른다. 마치 양이 코를 들이대어 닿는 대로 입 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종파 주인을 가리지 못하며, 손님인지 주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상황에 끄달리지 말고, 주체적 인간으로 살면 무엇을 하든 그 하는 일과 그 있는 자리가 모두 진실한 진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나 주체적 역할을 할 때 그 일은 온전한 나의 일이고, 삶이라고 합니다.

隨處作主 立處皆眞 : 처한 곳을 따라서 주인이 되라.
그러면 서 있는 곳 모두가 참된 것이다.



보물 제317호 석조 석가여래좌상

- * 「자유기교」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 범구경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중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41호·2017년 8월 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지옥 / 편집위원·동호, 법일, 자은, 정현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지옥(수행, 푸르름) / 삽화·도행 / 편집 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